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 214 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6년 1월 1일

【1】



■인생상대성원리-취해를 위해서, 한지위에 혼합재료, 135×125cm, 1993, 李珉柱 作

관상춘추

1996년 신년이 밝았다. 새해는 모교 개교50주년의 해이기도 하다. 모교 전신까지 합하면 무려 1백1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우리 동문들도 심기일전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해야 하겠다.

돌이켜보면 모교는 법관양성소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과 전문부, 고등학교의 연립복합체로서 출발하여 50년만에 세계 굴지의 대학이 되었다. 교수의 질이나 학생의 질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대학이지만 시설이

나 연구기재, 교육량, 도서관, 연구논문 발표등에 있어서는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세계 2백위밖에 안되는 예산과 시설에서도 20만이 넘는 영재를 양성하여

동창회의 새 아침

한국의 동량이 되게 한 은사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새해에는 모교의 발전을 위한 서울대학교법이 제정되어야 하겠고 세계로 웅비하는 기틀이 마련되어

야 하겠다. 낙후된 시설도 보수해야 하겠고 예산도 획기적으로 증액되어야 하겠다. 이 모든 것은 동문들의 헌신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설립된지도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모교 지원과 동문 친목을 위하여 다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새해에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하겠고 새로운 반세기기를 맞이할 기반을 다져야 하겠다.

새해 동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모교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시한번 부탁한다. (哲)

丙子年 새해인사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자신에게 묻자”

경애하는 서울대 동문 여러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모교가 개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인생에 있어서 50을 「知天命」이라 했습니다만 이제 조국의 운명을 걸머진 우리 모교가 50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서울대인들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조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우리에게 내린 천명은 어떤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진지하게 자문자답하는 새 아침이기도 합니다.

동문 여러분!

국내외에서 모교의 명예를 걸머지고 일하시는 여러분!

서울대인답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모교의 발전,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몸소 실천하는 도덕적 책임을 자각하십시오.

아무쪼록 격변하는 상황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 동문들이 힘을 합



하여 전진하는 첫걸음을 내디딤시다.

서울대 동문들과 그 가정위에 신의 은총이 가득 차기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표지〉李珉柱 作



인생상대성원리-취해를 위해서 한지위에 혼합재료, 135x125cm, 1993

〈작품평〉

마음은 실존함에 틀림없지만 물질적인 형태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의 자율성, 心魂의 울림을 화폭에 담고 있는 李동문(80년 美大卒)은 마음의 실존을 형상화하는 연금술사이

다. 崔暉英(78년 醫大卒)원자력병원정신과장

“개교 50주년의 기쁨
함께 누림시다”

새해 아침을 맞아 동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태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도 서울대학교는 金在淳 회장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그간 추진하던 대학개혁과 발전사업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2천년대를 내다보고 설정했던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서울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해방 직후 처음 개교하였을 때와 비교할 때 반세기가 지난 오늘의 서울대학교는 양적, 질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는 민족의 대학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같이 하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의 현재 상태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대학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운영의 자율성이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적·행정적 지원 역시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자체의 노력과 정부 및 사회각계의 이해와 성원이 조화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교는 이 경사스러운 해를 맞이하여 기념행사와 학술·출판 사업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창회에서도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모든 행사들이 잘 치러져서 비단 서울대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차원에서 개교 50주년의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열성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를 회고하고 기뻐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류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앞으로의 반세기동안 이루어야 할 원대한 목표앞에 서 있습니다. 본교가 개교 당시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것처럼 이 목표 역시 향후 50년 이내에 훌륭히 달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1996년의 희망찬 아침에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대학교 총장직무대리 鮮于仲皓

「송년의 밤」행사 성대하게 치뤄

金辛煥동문의 노래 앙콜받아



참석한 동문들의 요청으로 金辛煥동문의 앙콜곡이 계속 이어졌다.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11일 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95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李世震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해 白樂院, 羅雄培, 張翼龍부회장, 관악회 金道昶, 朴冠鎬이사, 白文基감사, 金哲洙, 孫一振, 李東和本보 논설위원, 朴振煥, 李誠載, 朴亨錫상임이사, 姜豪錫영동지부회장, 吳熙熙대전지부회장등 2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모교 鮮于仲皓부총장, 安承堯, 崔滿麟학장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내일의 희망, 희망있는 내일을 기대하는 자리』라면서 『책임감을 갖고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서울대인이 되자』고 역설했다.

鮮于仲皓부총장은 李壽成총장을 대신한 축사를 통해 『50번째 생일을 맞는 모교가 그 연륜만큼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적인 테너이자 서울시립오페라단장을 맡고 있는 金辛煥동문이 특별출연해 최근 「올해의 음악가상」을 수상한 李成均 모교 음대학장의 피아노 반주로 「가고파」 「망향」 「날 잊지 말아요」 등 주옥같은 노래를 선사했으며 참석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앙콜곡이 계속 이어졌다.

만찬에 이은 여흥시간에는

李仁子, 楊銀淑, 李信子, 李吉女, 金讚淑동문등 최근 취임한 여



孫京植동문



尹美子동문



洪性大동문



尹永錫동문



朴柱鐸동문

성 단과대동창회장들이 자신의 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 많은 동문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재단법인 관악회 새 임원진 선임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19일 신라호텔 「有明」에서 제66차 이사회를 개최, 96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원진은 임원개선을 만장일치로 金이사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9명중 3명이 연임, 6명의 임원을 교체했다.

새로 선임된 이사는 白文基(50년 美大卒·예술원회원), 孫京植(61년 法大卒·제일제당 회장), 洪性大(63년 文理大卒·상산학원 이사장), 尹美子(64년 美大卒·중문민속촌 대표), 尹永錫(64년 商大卒·대우그룹 총괄회장)동문이며 감사는 朴柱鐸(74년 商大卒·수산중공업 대표)동문이다.

관악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金在淳 ▲상임이사: 鄭宗澤 ▲이사: 崔主鎬, 金道昶, 金相廈, 白文基, 具平會, 尹相徹, 姜信浩, 孫京植, 洪性大, 許鎮奎, 尹美子, 尹永錫, 朴容晟 ▲감사: 朴英俊, 朴柱鐸 (變)

내각·청와대에 동문 대거 진출

장관은 모두 16명에 달해

振(62년 文理大卒)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임됐다. (變)

구랍 18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는 金泳三대통령은 국무총리로 李壽成(61년 法大卒)서울대총장을 임명한데 이어 20일엔 개각을 단행, 모교출신 동문들을 대거 각료에 기용했다.

이날 장관에 임명된 동문은 羅雄培(57년 商大卒)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權五琦(57년 法大卒)부총리겸 통일원장관, 安秉永(65년 行大院卒)교육, 金榮秀(64년 法大卒)문화체육, 姜雲太(72년 文理大卒)농림수산, 李錫采(68년 商大卒)정보통신, 鄭宗澤(58년 法大卒)환경, 金良培(63년 文理大卒)보건복지, 朱燉植(61년 師大卒)정무1장관등이다.

孔魯明(61년 法大卒)외무, 安又萬(60년 法大卒)법무, 朴在潤(63년 商大卒)통상산업, 陳稔(63년 商大卒)노동, 鄭根謨(59년 文理大卒)과기처, 金長淑(58년 藥大卒)정무2장관과 金基錫(64년 法大卒)법제처장은 유임

됐다.

청와대 비서진에도

한편 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도 대폭 개편됐는데 비서실장에 金光一(62년 法大卒)동문이 임명됐으며 경제수석에 具本英(70년 商大卒), 행정수석에 沈宇永(64년 法大卒), 민정수석에 文鍾洙(63년 法大卒), 신설된 사회복지 수석에 朴世逸(70년 法大卒), 정책기획수석에 李珪範(71년 文理大卒)동문이 임명됐다.

柳宗夏(59년 文理大卒)외교안보수석, 崔洋夫(68년 農大卒)농수산수석, 金錫友(67년 法大

卒)의전수석은 유임됐다.

차관급은 셀 수 없어

또한 23일에는 차관(급) 및 외청장 인사가 단행됐다. 이날 인사로 차관급 30명중 17명의 동문, 외청장 13명중 10명의 동문이 임명됐다.

재경원차관에 李桓均(64년 法大卒), 외무부차관에 李祺周(59년 法大卒), 교육부차관에 李永鐸(69년 商大卒), 문체부차관에 李庚文(63년 文理大卒), 농수산부차관에 趙壹鎬(70년 行大院卒), 통산부차관에 安光翥(64년 法大卒), 환경부차관에 尹瑞成(66년 法大卒), 과기처차관에 林昌烈(66년 商大卒)동문이 기용됐다.

또 국세청장에 林采柱(59년 商大卒), 관세청장에 姜萬洙(69년 法大卒), 산림청장에 李永來(64년 文理大卒), 수산청장에 田允喆(65년 法大卒), 공업진흥청장에 金裕采(67년 工大卒), 특허청장에 鄭海淵(68년 法大卒), 해운항만청장에 李富植(66년 文理大卒)동문이 임명됐다.

康奉均(69년 商大卒)총리행조실장, 金泰政(64년 法大卒)법무부차관, 李起浩(70년 商大卒)보건복지부차관, 崔勝夫(64년 文理大卒)노동부차관, 柳常悅(64년 法大卒)건설교통부차관, 朴松圭(58년 法大卒)법제처차장, 盧宇燮(64년 法大卒)감사원사무총장, 宋泰鎬(72년 文理大卒)총리비서실장, 金己燮(73년 文理大卒)안기부운영차장, 朴一龍(63년 法大卒)경찰청장, 金仁浩(66년 法大卒)철도청장, 表世



李壽成국무총리



羅雄培부총리(경제)



金榮秀문화체육부장관



鄭宗澤환경부장관



金陽秀농림수산부장관



姜雲太농림수산부장관



金陽秀보건복지부장관



安秉永교육부장관



李錫采정보통신부장관



朱燉植정무1장관



金光一비서실장



具本英경제수석



沈宇永행정수석



文鍾洙민정수석



朴世逸사회복지수석



李珪範정책기획수석

사대동창회

閔丙峻회장 “기금 1억 모을 터”



金鍾泌, 鄭元植, 李應百, 李元淳동문등 3백여명이 참석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師範大學同窓會(회장 閔丙峻)는 지난 8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3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金城鎮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同會는 은사인 鄭元植, 李應百, 李元淳교수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다.

閔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동창회기금 1억 모금을 계속 추진하는등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회 金在淳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鄭宗澤상임부회장은 『이렇게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신 것을 보더라도 사대동창회가 가장 모범적인 동창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새해에는 동문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양대 국악과 학생들이 특별출연해 「천년만세」 연주를 비롯 가야금 산조, 판소리 「춘향가」중 「사랑가」 등을 선사했다.

본문글자 전면교체

지면쇄신을 위해 지난 95년 2월호(제203호)로 전면 가로쓰기를 단행한 본보는 96년 1월호(제214호)부터는 본문글자를 부드럽고 커 보이는 장체로 전면 교체합니다.



한해를 마감하며 축배를 들었다.(좌로부터 세번째 李회장)

의대동창회

회관 건립 적극 추진키로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19일 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95년도 「습츨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權彝赫 前모교총장, 韓萬靑 前모교병원장등 2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李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에는 동창회 발전기금 모금과

동창회관 건립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姜信浩명예회장은 이날 의대 재미동창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19동기회는 동창회 발전기금을 출연해 동문들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치대동창회

세미나·교수 초청연 가져

齒科大學同窓會(회장 金讚淑)는 지난 11월10일 치대 제1세미나실에서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치과대학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李春根전임회장을 비롯해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韓秀夫교수의 「개원의를 위한 치주치료법」, 許成柱교수의 「국소의치 치료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란 제목으로 학술강연회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슬라이드를 보면서 白基碩부회장과 梁源植병원장의 설명으로 학교와 병원의 현황을 소개받고 모교시찰을 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치과대학내 「상아회관」에서 95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모교교수 40여명과 원로교수, 역대 학장들이 초청돼 자리를 함께 했다.

상대동창회

「빛내자 상」등 시상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27일 상의클럽에서 2백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정기총회겸 송년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회칙개정을 통해 20명 이내로 인원이 한정된 부회장 선임을 30명 이내로 개정하고 뭉치자, 돕자, 빛내자賞을 각각 시상했다.

매년 상대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빛내자 賞」은 올해 趙淳서울시장과 朴容晟국제유도연맹회장에게 돌아갔다. <志>

만평

李元馥



경축, 개교 50주년!
신역사창조의 시대가 열렸다!

수원지부

邊尙鉉회장 재선임



李仁濟, 沈載德동문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가운데 邊회장)

수원支部同窓會(회장 邊尙鉉)는 지난 7일 동수원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95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邊회장은 올해 명부발간으로 지부 발전이 지속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공지와 자부심을 갖고 동창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자』는 개회인사를 전했으며, 이날 李仁濟경기지사를 비롯 자리를 함께 했던 沈載德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동문들의 격려와 도움의 결과로 민선시장에 선출된 것으로 믿는 바 최선을 다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주요 안건이었던 임원개선에서는 邊회장이 유임됐으며, 단과대별 회원 구성에 따른 비례대표제 부회장선임안이 통과됐다.

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법대17회

신임회장에 金昌根동문

법대17동기회(회장 崔勝民)는 지난 16일 신라호텔 본관에서 1백40여명의 동문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同會는 이날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金昌根동문을 선임하고, 총무에 白相穆동문을 선출했다.

이어 동창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온 咸聖奎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법대21회

李康國신임회장 선출

법대21동기회(회장 金泰成)는 지난 12일 53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동 예화랑에서 95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同會는 지난 1년의 운영 경과보고 및 결산·감사보고를 통해 한해 사업을 마감하고, 신임회장에 李康國동문을 선출, 병자년 同會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

법대26회

새 회장에 俞重植동문

법대26동기회(회장 金洪柱)는 지난 20일 서초동 소재 「정일품」에서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주요안건이었던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俞重植(한화종합화학기획이사)동문을 선임하고 지난 1년간 등산, 바둑, 골프모임을 비롯한 同會의 활동을 정리, 평가했다. (燁)

논설위원 18명으로 증원
林炯斗·李元馥동문 위촉

본회 金在淳회장은 지난 12월9일 동창회 회칙 제14조 및 회보 편집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거, SBS편성제작본부장인 林炯斗(61년 文理大卒)동문과 그동안 본보에 격월간으로 만평을 게재해온 李元馥(66년 工大入·덕성여대교수)동문을 본보 논설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17명으로 구성되었던 본보 논설위원은 吳效鎭(前SBS편성이사)동문이 사임하고 2명의 논설위원이 합류하여 총 18명(상임 5명, 비상임 13명)으로 증원됐다.



林炯斗논설위원



李元馥논설위원

뉴욕지부

이사장에 李文輝동문 취임

뉴욕支部同窓會(회장 權泰典)는 지난 10월30일 금강산식당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吳仁錫전임회장이 재미동창회 수석부회장직을 맡게 됨에 따라 지난 9월1일자로 회장에 선출된 權泰典(58년 師大卒)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에 崔洙容(60년 商大卒)동문, 사무처장에 金眞源(79년 師大

卒)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재미동창회 李丙俊회장과 金性熙사무총장이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에 李文輝(58년 文理大卒)동문, 부이사장에 李典九(64년 農大卒)·李宇永(61년 工大卒)·金榮萬(65년 商大卒)·秋載玉(63년 醫大卒)·宋鶴麟(63년 法大卒)동문, 간사에 成貞淑(65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출했다.

영국지부

신임회장에 姜承求사장 추대

영국支部同窓會(회장 朴連根)는 구랍 19일 COOMBE HILL 골프클럽 연회장에서 盧昌熹 주영대사를 비롯해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진 이날 모임에서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姜承求(69년 商大卒·한국수출입은행 런던현지법인 사장)동문을 선출했다.

캐나다 밴쿠버지부

새 회장에 洪淳哲동문 선임

캐나다밴쿠버支部同窓會(회장 金鍾鍊)는 지난 9일 서울관로알식당에서 정기총회겸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40여명의 동문들은 洪淳哲(54년 農大卒)동문(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마산지부

송년회에서 참여 다짐

마산支部同窓會(회장 姜來烈)는 지난 13일 마산 로얄관광호텔 장미홀에서 95년도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姜회장은 『계속적인 참여와 협조로 동창회의 발

전을 도모하자』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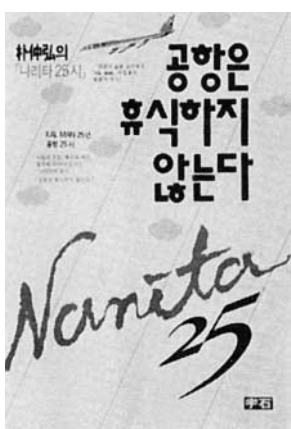
尹德重총무의 사회로 회무, 감사보고가 있는 후, 참석자들은 여흥시간을 갖고 회원들의 유대와 친목을 돈독히 했다.

특히 邊光周(42년 齒大卒)동문은 8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열창을 해 참석자들로부터 많

朴仲弘 동경지부 동창회장

「공항은 휴식하지 않는다」편내

1960년대 말 한국 민항의 시작과 함께 항공서비스의 일선에서 종사해온 대한항공 일본 나리타공항 지점장인 朴仲弘(57년 法大卒·동경지부동창회장)동문이 自傳 수상록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공항은 현대사회의 삶의 단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집약체이며 온갖 인종과 문화가 거처하는 「백화점」이다. 이같은 공항에서 30여년간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항풍속도와 더불어 후진들에게 도움이 될 직업의 노하우를 흥미롭게 소개했다.

일본인들의 전통문화와 서비스에 얽힌 일화와 공항내의 입국심사대, 세관, 면세점 등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기괴한 수법의 밀수,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문화의 차이로 겪는 사



건 등 朴동문의 체험속에 비춰지는 인생살이의 낙수들을 6장으로 나눠 꾸밈없이 고백하고 있다.

나리타공항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 없다고 밝힌 朴동문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나리타공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자랑스런 한국인의 에너지와 활력을 느낄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燮)

의대29회

金壽信회장 뽑아

의대29동기회(회장 丁民英)는 지난 5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40여명의 동문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丁회장은 이날 졸업2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간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20여년만에 졸업을 하게 되는 黃承周동문에 대한 同會의 정성이 담긴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한편 임원개선에서는 신임회장에 金壽信동문이 선임됐다.

경대원동창회

중국 金澤박사 초청강연



경대원동창회는 지부창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燦河)는 지난 18일 롯데호텔 사롯데에서 95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李회장, 全永吉 상임부회장, 金琮奉부회장, 芮致洙총무등 임원들을 비롯해서 7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2월 8, 9일 양일간 청주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문 20

여명이 포항제철등을 산업시찰했다」고 보고하고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뤄지는 것을 보면서 지부 창립에 큰 힘을 얻었으며 지부창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郭厚燮동문의 촉배 선도에 이어 만찬을 함께 한 참석자들은 중국의 金澤(연변국제관계학회연구원)박사로부터 「중국과 동북아의 관계」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들었다.

가정대동창회

2월 주소록 발간, 정총 개최



95년 가정대 이사회 남회(좌로부터 두번째 李회장)

家政大學同窓會(목련회·회장 李仁子)는 지난 16일 「서울탑」에서 95년도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여명의 임원들은 2월중에 개최할 예정인 정기총회겸 신입회원 환영회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동문들의 연락처를 수정, 보완해 새로 발간될 주소록을 검토했다.

음대동창회

평생회비제 도입키로

音樂大學同窓會(회장 李誠載)는 지난 15일 퍼시픽호텔 1층 소회의실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李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이사등 20여명의 임원이 참석했으며, 한해동안의 동창회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정기총회를 오는 3월1일 힐튼호텔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동문들에게 회비납부를 적극 권고하는 한편 그 방법의 하나로 평생회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대동창회

「동창의 밤」열기로

美術大學同窓會(회장 李信子)는 지난 18일 「하림각」에서 95년도 송년모임을 가졌다.

李회장을 비롯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부회장, 이사등 40여명의 동문들은 96년도 동창회 사업으로 기금모금을 위한 전람회와 「동창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난 10월 문화상을 수상한 白文基, 朴魯壽, 文學평동문에게 기념메달을 증정했다.

(志)



개교 50주년 기념 자체 이벤트를 마련키로 했다.

의대14회

97년에 스위스여행기로

의대14동기회(회장 鄭東哲)는 지난 14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카네이션룸에서 60여명의 동문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임시총회겸 송년회를 가

졌다.

이날 鄭회장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인용, 「동기회내에서 함께 더불어 호흡하는 공감을 계속 살려,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함께 해가며 새해에는 다시 태어나는 동기회가 되자」고 전하고, 내년 모교 개교50주년을 기념한 자체 이벤트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특히 졸업40주년이 되는 오는 97년에 있을 스위스여행에 많은 회원의 관심이 모아졌으며, 참석한 동문들은 박수와 함께 새 운영진의 활동과 의욕에 격려와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축하와 격려의 나눔을 같이 했다.

약대17회

신임회장에 白基男동문 선출

약대17동기회(회장 趙典勳)는 지난 9일 모교 호암생활관 파인룸에서 朴萬基약대학장등 32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趙회장은 「다사다난한 한해를 무사히 보내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날 새로 추대된

白基男신임회장에게 졸업3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각종 여행모임을 지속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임 白회장은 韓在英동문을 총무로, 이하 3인을 부회장으로 지명하고 모범 동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상대1·7회

장학기금 운영계획 세워



송구영신의 덕담을 나누었다.(좌로부터 두번째 朴在潤, 朴容晟, 禹德昶, 陳稔동문)

상대1·7동기회(회장 禹德昶)는 지난 12일 릿츠칼튼호텔 금강룸에서 95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9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다사다난했던 95년도를 되새기며 丙子년 새해를 맞는 送舊迎新의 덕담을 곁들인 이날 모임에는 朴在潤총상산업부장관과 陳稔노동부장관을 비롯 朴容

晟국제유도연맹회장등도 자리를 함께 해 同會의 금지와 자부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그리고 기우회(바둑모임)및 골프회의 1년 운영보고와 함께 그동안 틈틈이 적립해온 장학기금과 졸업30주년기금 총 2억 2천6백여만원의 내년도 운영계획을 세웠으며, 지난 일년 회원들의吉凶禍福에 대해 서로

육문회

후배기자 지원다짐

문리대출신 政·官·언론계 모임인 育文會(회장 朴命根)는 지난 5일 전경련회관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朴회장은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심기일전하여 다시 뛰자」고 소감을 피력한 후, 앞으로도 「후배 기자들에게 보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회원들은 「내년에도 알찬 육문회가 되도록 노력하자」며 동문 상호간에 우의와 화합을 다지기도 했다.

치대11회

유적지 관광 마쳐

치대11동기회(회장 趙英善)는 지난 11월11, 12일 양일간 경주 공교드호텔에서 졸업38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번 기념행사에는 골프대회와 유적관광등을 함께 했으며 와병으로 이날 참석하지 못한 동문에게 위로금을 전달기로 하는 한편, 모교 발전기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燁)

동정

수상

▲柳駿(41년 醫大卒·연세대 명예교수)= 지난 27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나병연구 및 봉사, 자선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세계적 권위의 메다미엔-듀튼상을 수상했다.

▲鄭允敏(55년 音大卒·서울시립청소년교향악단고문)= 지난 4일 한국음악협회가 선정하는 「'95 한국음악상」(관악부문)을 수상했다.

▲金辛煥(52년 文理大入·서울시립오페라단장)= 최근 한국예술평론가협회가 선정하는 「'95 최우수 예술인상」(음악부문)을 수상.

▲李成均(57년 音大卒·모교음대학장·本會理事)= 지난 4일 한국음악협회가 선정하는 「'95 한국음악상」(피아노부문)을 수상했다.

▲李吉女(57년 醫大卒·길병원 이사장·醫大同窓會長)= 최근 향토전북발전에 기여하고 자랑스런 전북인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 사람에게 수여하는 제18회 「전라북도 애향 대상」을 수상했다.

▲馬奎河(60년 工大卒·기아정기이사장·本會理事)= 최근 품질관리분야의 이론과 30여년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펴낸 「실천적 품질경영」이란 책으로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저술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白秉東(61년 音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지난 4일 한국음악협회가 선정하는 「'95 한국음악상」(작곡부문)을 수상했다.

▲洪性雄(62년 商大卒·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本會理事)= 최근 미시간주립대가 각국의 관료, 경영자, 학자들중 국제적인 공헌이 있는 인사에게 수여하는 「세계지도자상」을 수상했다.

▲崔靑林(63년 商大卒·조선일보 편집국장·本報論說委員)= 지난 5일 제13회 관훈언론상 시상식에서 전직 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 발언보도로 관훈언론상을 수상.

▲丘成大(68년 醫大卒·전북군 산시 보건소장·本會理事)= 지난 8일 방역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서훈받았다.

▲曹慶鐘(70년 保大院卒·前국립부산검역소장·本會理事)= 지난 11월17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주방용 식기류등의 각종 유해물질검역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공을 인정받아 「제9회 보건대상」(공로부문)을 수상했다.

▲成晉根(71년 大學院卒·충북대교수)= 지난 11월2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촌문화상」(학술부문)을 수상했다.

▲趙炳華(43년 師大卒·시인·예술원 부회장)= 지난 19일 예술원 제27대 회장에 선임됐다.

▲金英均(49년 醫大卒·모교명예교수·本會理事)= 지난 11월29일 한국전립선관리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李相旭(56년 醫大卒·카톨릭 의대교수)= 최근 중국 河南의 대기질지도교수와 안병연구소 명예소장 및 레이저안병원 명예원장에 위촉됐다.

▲南時旭(58년 文理大卒·동아일보상무·本會理事)= 최근 문화일보 사장에 선임됐다.

▲李鳴九(60년 法大卒·한양대교수·本會理事)= 최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총에서 제2대 회장에 선임됐다.

▲徐宗鎬(61년 文理大卒·호남정유전무)= 최근 호남정유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安秉勳(61년 法大卒·조선일보 편집인·本會理事)= 지난 11월7일 여의도 LG트윈타워빌딩에서 열린 「LG 上南언론재단」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羅公默(61년 商大卒·유화사장·本會理事)= 최근 코오롱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卞圭七(62년 法大卒·前 LG그룹 부회장·本會理事)= 최근 LG상사 회장겸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吳世熙(62년 法大卒·하이쇼 팡사장·本會理事)= 지난 5일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업체, 지역종합유선방송국, 전송망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이사로 선임됐다.

▲崔公雄(62년 法大卒·대구고법원장)= 최근 대전고법원장에 임명됐다.

▲任德淳(62년 師大卒·충북대교수·本會理事)= 최근 열린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宋大平(63년 工大卒·코오롱정보통신사장)= 최근 코오롱그룹 기획조정실장(사장)으로 전보.

▲尹元錫(63년 法大卒·대우중공업 사장·本會理事)= 최근 대우중공업 회장으로 승진했다.

▲李法薰(63년 法大卒·코오롱전자부사장·本會理事)= 최근 코오롱전자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영전.

▲韓大鉉(63년 法大卒·대전고법원장)= 최근 서울고법원장에 임명됐다.

▲崔洙秉(63년 商大卒·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本會理事)= 지난 27일자로 서울특별

시 정부부시장에 임명됐다.
▲金泰球(63년 商大卒·대우자동차 사장)= 최근 대우자동차 부문 회장으로 승진했다.

▲金德初(64년 工大卒·대우건설전무)= 최근 신원종합개발 사장에 취임했다.

▲陳平植(64년 工大卒·LG전선전무)= 최근 LG전선 전선CU부 사장으로 승진했다.

▲韓亨洙(64년 工大卒·前새한 미디어 부회장·本會理事)= 최근 새한미디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영전.

▲申載衡(64년 法大卒·코오롱메트생명사장)= 최근 코오롱제약 사장으로 전보.

▲梁仁平(64년 法大卒·서울지법서부지원장)= 최근 춘천지법원장으로 승진했다.

▲池弘源(64년 法大卒·광주고법원장·本會理事)= 최근 대구고법원장에 임명됐다.

▲權泰雄(64년 商大卒·LG그룹 부사장·本會理事)= 최근 LG하니웰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金南奭(64년 商大卒·前주택은행 부행장보)= 최근 주은투자자문 사장에 선임됐다.

▲金昱漢(64년 商大卒·대우그룹 부사장)= 최근 대우기전공업 사장으로 승진했다.

▲石學鎭(64년 商大卒·코오롱건설회장·本會理事)= 최근 코오롱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吳準熙(64년 商大卒·코오롱 그룹기조실장·本會理事)=최근 코오롱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尹永錫(64년 商大卒·대우중공업회장·本會理事)=최근 대우그룹 비서실 회장에 취임했다.

▲崔周完(64년 商大卒·대우자동차부사장·本會理事)=최근 한국합부금용 사장으로 승진했다.

▲李鐵煥(64년 司大院卒·춘천지법원장)=최근 광주고법원장에 임명됐다.

▲李基春(65년 家政大卒·모교교수)=최근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여성학회 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申勝敎(65년 工大卒·LG건설전무)=최근 LG건설 대표이사 겸 CU장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裴學哲(65년 法大卒·대구방송부사장)=최근 대구방송 사장으로 승진했다.

▲趙容完(65년 法大卒·서울고법부장판사·本會理事)=최근 서부지원장에 임명됐다.

▲黃龍河(65년 法大卒·前경찰청 경무국장)=최근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됐다.

▲梁在信(66년 工大卒·대우자동차부사장·本會理事)=최근 대우자동차 사장으로 승진했다.

▲金 洸(66년 商大卒·호유에너지부사장)=최근 호유해운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전보.

▲盧準喆(67년 工大卒·LG화학전무·本會理事)=최근 LG화학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宋寅雄(67년 商大卒·외환은행검사부장)=최근 외환카드 부사장에 취임했다.

▲黃正烈(68년 工大卒·삼성중공업상무)=최근 삼성중공업 전무로 승진했다.

▲崔成來(68년 商大卒·삼성전자전무·本會理事)=최근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李光鎭(68년 醫大卒·충남대병원장)=지난 7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회장에 선임됐다.

▲趙起濟(69년 工大卒·삼성중공업)=최근 삼성중공업 전무로 승진했다.

▲趙明載(69년 商大卒·LG화학전무)=최근 LG화학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李成舜(70년 文理大卒·성균관대교수)=최근 섬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산업조직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李秀一(70년 法大卒·前경찰청교통국장)=최근 경찰대학장에 임명됐다.

▲李光淑(70년 師大卒·모교교수)=지난 19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임됐다.

▲宋文秀(71년 商大卒·코오롱그룹상무)=최근 A&C코오롱 전무로 승진했다.

▲姜皓文(72년 工大卒·삼성전자상무)=최근 삼성전자 전무

로 승진했다.

▲朱惠璟(72년 文理大卒·삼성데이타시스템)=최근 삼성데이타시스템 이사보로 승진했다.

▲秋浩錫(73년 商大卒·대우그룹전무)=최근 (주)대우 종합기계부문 사장으로 승진했다.

▲陳大濟(74년 工大卒·삼성전자전무)=최근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柳錫烈(74년 商大卒·삼성전자상무)=최근 삼성전자 전무로 승진했다.

▲朴魯炳(76년 工大卒·삼성전자상무)=최근 삼성전자 전무로 승진했다.

▲閔載泓(78년 工大卒·삼성물산전무)=최근 삼성물산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申成燮(89년 行大院卒·대검찰청과학수사운영과장)=최근 폴리그라프(거짓말 탐지기)협회 정총에서

제13대 회장에 선임됐다.

행사·출간

▲孫鶴奎(56년 文理大卒·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지난 9일 동국대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여성과 노동의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韓守垠(59년 工大卒·대한토목학회장·本會理事)=오는 1월 8일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전화 407-4115)

▲林錫珍(56년 文理大卒·해결학회장·本會理事)=지난 26일 서강대에서 윤병태 연세대 교수 등을 초청,

「해결 동일성 개념의 본질론적 구조」라는 주제등으로 세미나를 개최.

▲張潤宇(62년 美大卒·한국디자인협회 이사장·本會理事)=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산업디자인포

장개발원에서 제23회 회원전과 '95 디자인대전(제24회 전국대학생디자인공모전)을 개최.

▲朴弘植(62년 法大卒·산업기술정보원장·本會理事)=최근 전국 60여 산업기술관련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기업경영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郭正出(63년 法大卒·국회의원·한·멕시코의원친선협회장·本會理事)=지난 15일 주한 멕시코대사 세실리오 카자르를 비롯해 대사관측과 친선협회 소속의원들을 초청, 친목행사를 가졌다.

▲李奎億(68년 商大卒·산업연구회장)=지난 11월28일 삼성

張翼龍 서광그룹 회장

纖產聯 6대 회장에 취임

「앞으로 섬유업계는 품질과 서비스, 유통 및 물류, 업종·업체간 협력등을 통한 시간경영 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한 張翼龍(58년 工大卒·본회 부회장)서광그룹 회장은 「국내 섬유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제조 즉, 생산과 가격경쟁에 지나치게 전념해온 나머지 「質경영」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부터라도 각 업체 및 업종은 기획·생산·마케팅능력을 배양하고 양보다 품질에 승부를 걸겠다는 자세로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만 2천년대에 일본·이탈리아 등 섬유열강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 張회장의 소신이다.

張회장은 최근 업계의 초미 관심사인 남북경협과 관련해 서도 남다른 의욕을 표명했다. 섬유산업이 남북한 경협의



초기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북한 섬유산업 투자 및 거래 활성을 담당하는 전담창구를 섬유관련 기관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5년 서광과 인연을 맺은 후 30여년간 섬유 외길을 걸어온 張회장은 최근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5백만원을 출연하면서 동문 기업인에게 「지금 섬유산업의 미래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상호협력력을 통해 동문 모두의 결집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變)



李壽成 신임 국무총리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터”

대담·李世震편집주간

동 무역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무역문화의 정립」을 주제로 수출 1천억달러 달성을 기념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申允淑(68년 藥大卒·독일민 현대교수)=



지난 27일 본 회 사무처를 방문해 李世震 사무처장과 환담했다.

申동문은 현재 유전대사병을 연구중이며 국내외 동문들과 많은 교류를 바란다고 전했다.

▲愼克範(68년 敎大院卒·한국 교원대총장)=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교육부장관 협의기구 산하 교육개혁본부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 「21세기의 세계와 교육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朴鍾奭(69년 商大卒·주택은행장)=



지난 8일 「차세대 사랑신탁」가 입고객의 이익금과 은행의 기부금을

합친 복지기금 1억7천8백만원을 한국심장재단과 한국강생보호공단에 전달했다.

▲尹美容(69년 音大卒·국악중교교장)=



개교 4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28일 국악고등학교 우육당에서

「국악교육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21세기 국악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崔洸(70년 商大卒·한국조세학회장)=최근 전경련 및 한국세무협회와 공동으로 「지방세 개혁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俞炳林(72년 行大院卒·한국조경학회장)=지난 6일 한국과 학기학회관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에서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회복과 조경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李存熙(73년 敎大院卒·서울학연구소장)=지난 11월27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서울,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을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金雲美(84년 大學院卒·한양대교수)=



지난 10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김윤미 춤 '95」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리=金志妍기자)



구립 18일 신임 국무총리에 임명된 모교 李壽成 前총장을 만나보았다.

—만 40년만에 모교를 떠나신 소감은.

「56년 입학한 이래 한번도 떠난 적이 없었는데 저의 혼이 담겨 있는 모교를 이렇게 떠나오니 개인적으로 아쉽고 착잡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도 대한민국의 일부라는 전제하에 나라의 발전에 봉사하는 것이 모교를 발전시키는 또다른 방법이 아닌가 하고 애써 자위할 따름입니다. 여러 훌륭한 분들과 손잡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0개월 정도의 모교 총장 재임기간동안 대학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는데.

「대학에 기여한 것이 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만 다했다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교를 아끼는 학내외 인사들의 지원에 힘입어 농생대와 수의대의 관악이전, 간호대학 교사 및 교수종합

연구동의 건립이 확정되는 등 몇가지 숙원과제가 이루어졌고, 동창회의 도움으로 발전기금이 대폭 확충되는 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미술관 건립, 학생문예회관과 식당등 복지시설 계획도 이미 서 있으며 인문,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기금도 다행히 확보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은.

「직원 아파트 건설의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학문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열악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도 일부만 시행되는등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금교수제」를 통한 연구인력의 확충, 대학입시의 자율화등 대학운영의 자율화를 향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후임총장과 교직원들이 훌륭하게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리라 생각합니다」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가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할 수 있는 비전과 지원방안은?

「대학을 포함한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교사나 교수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큰 힘으로 분출될 때 우리나라는 참으로 빛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에 관한 관심을 어떤 분야보다 두텁게 갖고자 합니다. 교육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치사회의 개혁, 부단한 국민의 통합을 통해 나라를 융성하게 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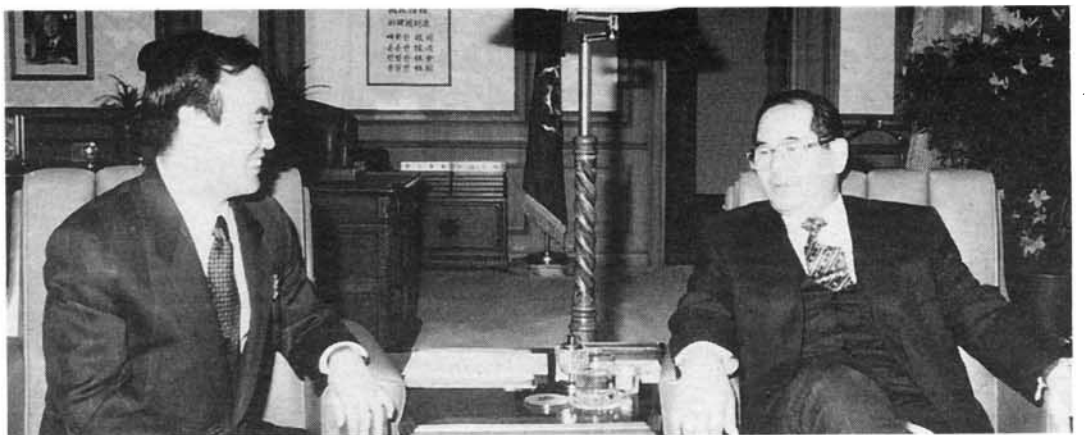
「정치에 관해서는 내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고 관여하고 싶

은 생각도 없습니다. 내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더 잘 살게 해주고 젊은이들이 자기 조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근본 목표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열심히 해야하고 일부 국민의 사치스런 성향과 환락적인 생활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내각이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남아있는 분들과 21만 동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동문들이 모교를 사랑하는 것은 모교 발전의 큰 힘입니다. 단순히 졸업으로 끝나지 않고 후배들을 키운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키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학을 대해주시면 그렇게 큰 힘의 원천이 없으리라 봅니다. 동문들이 협력해서 모교에 더욱 강렬한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보다 몇 배, 몇 십배 훌륭한 분들이 학생들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고 아무런 불안없이 떠나올 수 있음을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리=安興燮기자)



李符永교수

제5회 분쉬의학상 수상

李符永(59년 醫大卒·모교교수)동문이 지난 11월29일 분석심리학 및 문화정신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제5회 분쉬의학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상금 2천만원과 기념메달을 받았다.

대한의학회와 한국배링거인젤하임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상은 1991년 한말 고종황제의 시의로 한국의 서양의료 발전에 공헌한 독일의사 Dr.

R. Wunsch를 기리고 한독의학 교류를 기념해 제정됐다.

한국분석심리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등을 역임한 李符永은 한국인의 정신병리현상과 문화정신의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정신의료뿐만 아니라 의학일반과 문화와의 연계, 문화와 심층심리학의 관련성을 제시함으로써 의학의 시야를 확대, 심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 (志)



80년 여름 어느날이던가, 나는 서울 근처 송추 계곡에서 육사출신 친구와 격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는 고교 동창으로 육사 21기였으나 일찌감치 예편해 있었다. 그의 요지는 너희 서울대출신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쳐 놓았다는 것이다. 사회에 나와 보니, 정직과 명예를 신조로 삼고 투철한 국가관 교육을 받아 가난을 마다않고 살아온 육사출신 장교의 눈으로는 국가의 요직에 많이 있는 서울대출신 엘리트들이라는게 모조리 부패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는 것이다. 실력은 높아도 국가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군인의 국가경영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관 문제로 다투었다. 그 친구의 국가관은 실천적이었고 의심할데 없어 보였다. 군인들은 교육 받은대로 살면서 나라위해 몸을 바쳐 일하기 때문에 청렴결백하고 어떤 업무에도 국가관을 갖고 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대학 출신들은 사관학교처럼 국가관 교육이 없어 그런지 사리사욕과 출세주의만 가치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사리사욕·출세주의에 눈 멀어

나는 발끈했다. 국가관을 획일화하면 위험하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국가관이 있고 신기료 장수에 알맞는 국가관도 있는 것이다.



신기료 장수의 국가관

우리 동네 골목 어구에 신기료 장수가 나이 60되도록 남의 신발 수선하는 일로 먹고 살아왔지만 그는 4남매를 착하게 잘 키워왔다. 그의 가난하지만 성실한 삶의 자세, 자기가 손질하는 구두는 어느 누구의 것보다 튼튼하고 맵싸있게 한다는 자부심, 동네 사람들에게 오랜동안 친숙하고 신뢰를 받는 하나의 직업인, 적은 수입이지만 분수로 알고 그 만큼만 입고 먹고 사는 무욕의 경지, 이러한 그가 키우는 자식들은

그로부터 배운 생활의 자세를 지키며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효도한다. 이러한 사람을 국가관이 없다고 업신여길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많은 직업, 여러가지 높고 낮은 위치에서 제 할 바를 지켜내고 있는 무수한 애국자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군인 정신으로 보면 한심해 보이는 국가관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나 역시 방송 PD일을 나름대로 투철한 정신과 「국가관」을 가지고 일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군대의 국가관과는 다른 차원에서다. 서울대출신 엘리트들의 부패구조가 아니라, 부패구조속에 있는 서울대출신 엘리트의 노력과 역할이 문제다... 이러면서 논박을 주고 받았다.

무수한 애국자 간과해선 안돼

그런데 오늘날, 그들 군 출신의 투철한 국가관으로 문쳐 나라를 엮어잡아 직접 경영한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80년 당시 국가관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공직자들이 시달렸던 것을 안다.

이제는 어느 출신의 국가관이 아니라 모든 출신의 다양한 국가관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화」된 국가관을 만들 때이다.

(본보 논설위원)

서울대동문에게함

이웃을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갖자

白英鶴(53년 工大卒)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위원

고속도로를 왕복하면서 겪는 일이지만 갑자기 차선을 바꿔 바로 몇 미터 앞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놀랄 때가 있다. 특히 대형차의 난폭운전에 직면할 때는 등에 땀이 흐른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이 마음내키는 대로 차를 모는 교양없는 행동이 모두 한심하지만, 특히 대형차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을 때 작은 승용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문명사회인지, 미개사회인지

의 판별기준은 이웃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언동을 삼가하는 주민의 비율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고속도로상의 대형차 운전자보다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행사할 때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얼마나 배려할까?

가진 만큼 겸손해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잘못 행사(의도적이거나 관

단미속에 의한 실수에 관계없이)함으로써 수많은 서민이 어려움을 겪거나 불안에 떠는 데도 전혀 무감각하거나 알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시정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는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정보(또는 지식)를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이나 정보를 써서 서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득이나 향락을 즐김으로써 소시민의 의욕을 잃게 하거나 소외감을 갖게 하는 일이 없었는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야 하지 않겠



는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바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도의 도덕심이 아닐까?

책임지는 자세 필요

세계화, 국제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

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나아가 세계인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그 목표달성의 첫 걸음은 먼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가진 사람이 함께 사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후손이 아닌가?

살기 좋은 사회,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독선적인 생각은 곤란하지만 적어도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세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방향

사회복지라함은 사회변동에서 오는 제반 문제나 결함에 대처하는 활동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등의 급변하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그때 그때의 새로운 대처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대체로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국가에 의한 최소한의 지원체제인 구조적 차원의 안전망 접근에서 국민이면 누구나 복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복지국가 접근으로 그 발전적 단계를 밟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도 급변하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혼란과 비판이 고조되며 앞날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의 일대 전환 필요

우리나라도 1인당 GNP 1만불시대에 돌입했으며 복지수요 인구의 증대와 아울러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방법에 일대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중앙집권적인 서비스 전달이나 물질, 구호 위주의 복지사업, 또는 각종 복지시설이나 서비스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즉 오늘날은 단순한 보호나 물품의 제공이 아니라 사회적 의존 인구의 개별적 욕구와 그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방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張仁協 명예교수

날로 증가하는 고령의 노인들, 소외되기 쉬운 정신장애자들, 사고나 재해로 인한 장애인들, 학대받고 방임되는 아동들 그리고 악순환에서 헤어날 수 없는 빈곤자들. 이들에 대한 대인적 사회서비스는 우리의 절박한 복지과제로서 지역사회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사회복지 사책이나 실천이 요청된다.

지역특성 최대 활용해야

그러한 맥락에서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자원봉사 인력을 포함하는)의 동반자 관계의 수립, 일정지역에서의 의료, 보건 복지의 상호관계성의 유대강화, 합리적 지역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수요와 자원의 창출, 대인적 서비스의 효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제도의 확립 및 대인적 집적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 개발 실천등은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접근이다.



金炳翼 동문가족

“가족 10여명이 모교와 인연”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장남 宇耕, 셋째딸 艾欄, 둘째딸 艾琳, 큰딸 艾玲, 金동문, 조모, 조부 金沅根, 부인 鄭智英

「문학과 지성」, 현대 문학비평계의 대표 주자로서 70, 80년대와 오늘에 있어 대학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정도는 읽어보고 또 들어본직한 문학지, 바로 이 「문학과 지성」의 편집인이자 문학비평가로 널리 알려진 金炳翼(61년 文理大卒)동문의 가정을 찾아보았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인구비로 볼 때 서울대 동문이라는 자격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부인 鄭智英(61년 社會大卒)동문과 큰딸 艾玲(90년 人文大卒), 둘째딸 艾琳(연대卒), 셋째딸 艾欄(94년 社會大卒) 그리고 현재 모교 공대에 재학중인 막내아들 宇耕, 총 여섯 식구의 가정을 단란히 꾸리고 있는 金동문을 접했을 때는 무려 5명의 선배동문이 안방에서 오손도손 식사를 하게 되는 모습이 상상되어 가히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은 국민학교 동기동창

국민학교 동기동창인 부인과의 첫 만남의 짝사랑에서부터 군복무시절의 편도 연애편지까지, 그야말로 당시 金동문의 열성적 노력과 정은 세간의 영화 「결혼 이야기」보다 더 아슬아슬하고 재미있었다.

의외로 술에는 취미가 없다는, 시골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처럼 친근한 인상의 金동문을

접하면서 혹 특별한 자녀교육법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개성과 겸손」을 중시한다는 나름의 교육철학을 털어 놓는다. 평소 그림과 음악을 즐겨하는 부인과 문학을 생의 천직으로 삼아온 金동문의 슬하에서 자라나 저마다 최선을 다하며 삶을 개척해가는 1남3녀의 꽃다운 오늘의 모습을 볼 때면 바로 이런 연유에서 유래됨을 쉽게 깨닫게 됨직도 하다.

자녀교육 「개성과 겸손」중시

이날 金동문의 가족에게서 발견한 특이한 점의 또 하나는 정치학과 선배인 형님 金炳宅(56년 文理大卒)동문과 처제 鄭惠英(64년 文理大卒)동문, 그리고 동서 金光圭(64년 文理大卒)동문등 많은 수의 가족이 서울대와 緣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병자년 새해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올해로 결혼 30주년을 맞게 된다는 金동문 부부는 사위 李政勳동문(90년 人文大卒)과 함께 파리에 유학중인 큰딸 艾玲과 영국의 셋째딸 艾欄을 찾아보려 한다고 전하고 덧붙여 문필가로서 「문학과 지성」에 이어 「문학과 사회」의 젊은 세대 문학비평가를 발굴해 보고 싶다고 새해 희망을 밝혔다. (燁)

4월 13일

동문업소
탐방

Kenny Rogers
로스터스

고른 숨쉬기로 정신건강 다져

李揆行(58년 商大卒)삼공선도 본원회장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숨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개 건강한 사람의 숨쉬기는 깊은 숨 또는 긴 숨인데 반해 병약한 사람의 숨쉬기는 얕은 숨 또는 짧은 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의 숨쉬기는 깊고 긴 숨인데 반해서 실패한 사람의 숨쉬기는 얕고 짧은 숨인 것입니다.

70평생 6억번의 호흡

보통사람들의 숨쉬는 방법은 한 호흡에 3초 내지 4초라고 합니다. 한 호흡에 4초라는 것은 2초의 내쉬기 숨에 2초의 들어마시기 숨을 든다는 뜻입니다. 4초에 한 호흡을 하는 사람은 1분에 15번의 호흡을 하며 1시간에 9백번의 호흡, 하루에 2만1천6백번의 호흡을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개월의 호흡수는 64만8천번, 1년의 호흡수는 8백48만4천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수명을 70세라고 치면 그 사람의 호흡수는 약 6억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수로 사람의 수명을 역산하면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래 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호흡 4초가 10초 내지 20초로 늘어나면 그 사람의 수명과 건강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른 자세로 어깨힘 빼야

저는 아침, 저녁으로 단전호흡수련을 통해 한 호흡에 45초 가량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한 호흡 1분 수준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호흡이란 무리해서도 안됩니다. 바른 자세로 어깨에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길게 단전에 숨이 닿도록 해야 합니다.

새해에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저는 36년동안 언론계에 종사하다가 지난 11월 문화일보 회장을 사임하고 전통단전호흡 수련단체인 삼공선도 본원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많은 동문들로부터 너무나 의아스러운 방향전환이란 말도 듣고 있습니다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올바른 건강법을 세상에 펼치는데 대하여 어떤 사명감같은 것을 느낀 것도 저의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깊고 긴 숨

저는 건강법의 기본은 숨쉬기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곧 숨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숨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참나무 구이 치킨전문점

양재, 고덕, 논현, 명동에 있는 「케니 로저스 로스터스」는 「피자 핫」으로 외식업계의 황제로 군림해온 成信濟(71년 文理大卒·한국로스터스사장) 동문이 이번에 새로운 각오로 문을 연 참나무 통구이 치킨 전문점이다.

기름기 적어 담백한 맛

이곳은 일반 패스트 푸드점과 다른 조리법을 쓰고 있다. 우선 신선한 닭고기를 미국의 재래식 방법으로 24시간 염지하여 지방이 최대한 추출되도록 오랜 시간 참나무로 구이를 한다. 매장에서 직접 굽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있고 기름기가 적어 성인병이나 비만 걱정도 덜어준다.

메뉴는 닭고기 반마리(6천6백원)나 부위별로 다리살(3천6백원), 가슴살(3천원)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들 음식에는 케니스 머핀(5백50원)이 서비스로 나온다. 여럿이 함께 왔을 때는 통구이(1만5천원, 2만3천원)를 권하고 싶다. 이 음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3종류의 Side Dish와 6개의 케니스 머핀을 공짜로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구매한 신선한 재료로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Side Dish(1천3백원)는 샐러드와 메쉬 포테이토, 마카로니, 치즈, 라이스 필라프, 하니 빈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선택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감자, 당근, 완두콩에 치킨과 우유등으로 만든 팟 파이(4천4백원), 치킨에 소스를 묻혀 부드러운 빵으로 감싼 바베큐 치킨



피타(3천6백원), 야채와 치즈에 드레싱을 가미한 로스터스 치킨 비타(3천6백원) 등도 일품이다.

스페셜 샐러드로는 치킨 샐러드(5천5백원), 샐러드 라지(4천4백원), 샐러드 레귤러(2천2백원)가 있으며 치킨 스프는 3천6백원이다. 이 외에도 다이어트 코크, 스프라이트, 커피등을 비롯해 수정과, 식혜 등 다양한 음료수(1천6백원)가 준비되어 있고 슬러쉬 키위, 사과등 과일은 물론 캔맥주(2천5백원)도 마련돼 있다.

각 지점마다 분위기 달라

명동점은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신세대에 중점을 두어 깔끔하고 세련된 멋이 풍긴다. 뮤직비디오를 항상 틀어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도 눈에 띈다.

논현점이나 고덕점은 이곳에 비해서 웨미리 레스토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장년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이곳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나온 부부나 생일파티, 결혼기념파티등을 부담없이 치를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한 가족(4인 기준)이 3~4만원이면 다양한 메뉴를 흡족하게 맛볼 수 있다. (志)



모교소식

李壽成총장 이임식 金在淳회장 등 참석

9개월여간 모교 총장을 지낸 李壽成(신임 국무총리)의 총장이 임식이 지난 19일 모교 문화관에서 尹天柱·高柄翊·權彞赫·李賢宰·趙完圭·金鍾云 전임총장과 본회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처장을 비롯, 교수 및 학생대표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李총장은 이임사에서 『영광스런 총장직을 갑자기 물러난 데 대해 아쉽고 착잡한 심경』이라며 『국가발전에 봉사하는 것이 모교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총장은 대학에 남아있는 선후배에게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의 대학으로서 내실을 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임식에서 李총장은



40여년만에 모교를 떠나는 李총장이 본회 金在淳회장과 아쉬운 악수를 하고 있다.

제39대 총학생회 余星午(국사학 4년)회장으로부터 축하꽃다발을 받았으며 鮮于仲皓부총장

으로부터 직원 명의로 된 기념패와 기념품을 증정받았다.

대학원 수료생

교내시설 이용 가능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자들이 일정 부담금을 내고 교내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대학원연구생 제도가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된다.

대학원 수료생들이 우수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대학원연구생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학원연구생 신분증을 받으면 기숙사에 입사 신

청 자격이 부여되며 차량 출입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고 도서관, 실험실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 조교활동도 가능하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된다.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수료생들은 각 대학(원) 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학생 등록기간에 학기당 인문·예체능계는 10만원, 자연계는 15만원을 내면 된다.

모교등 5개대 이공계

國策대학원 선정

교육부는 지난 15일 모교(기초과학), 연세대(자연과학기초), 고려대(생명공학), 포항공대(환경기술), 한양대(신소재공정)등 5개대 5개 이공계분야를 국책대학원으로 선정,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백억원을 지원해

중점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모교 50억원, 연세대 40억원, 고려대 35억원, 포항공대 40억원, 한양대가 35억원의 지원을 각각 받게 됐다.

학사편입시험 2월6일 실시

모교는 96학년도 학사편입학 및 군위탁생 전형시험을 2월6일에 실시키로 했다.

지원자격은 학사편입학생의 경우는 96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모교 졸업생에 한하며 군위탁편입생의 경우는 3군의 각

사관학교를 졸업했거나 96년 졸업예정자중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일간 각 대학 교무행정실에서 하게 된다.

쌍용양회 禹德昶사장

석좌교수기금 4억 출연기로

쌍용양회공업(주)(사장 禹德昶·63년 商大卒)은 지난 1일 「쌍용석좌교수기금」으로 4억원을 출연기로 약정하고 1차분으로 1억을 출연했다.

이 기금은 공과대학 무기재료공학과와 「시멘트 및 시멘트 관련 이론 분야」의 교수를 총원하는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간호대학

제1회 아·태 학술대회

간호대학(학장 洪麗信)은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노인 간호의 정책과 전망」을 주제로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학술대회를 모교 문화관에서 간호과학연구소(소장 李憲玉)의 주관으로 개최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학자들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노인간호이론, 치매노인간호, 노인간호 실태등에 관한 논문이 발표됐다.

공과대학

「발전공로상」시상

공과대학(학장 韓松曄)은 구랍 29일 「서울공대 발전공로

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朴雲緒(63년 文理大卒·前통상산업부 차관)동문과 尹永錫(64년 商大卒·대우그룹 총괄회장)동문이 공과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非공대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공동수상했다.

보건대학원

국제 학술심포지엄

보건대학원(원장 李容旭)은 지난 8일 모교 강당에서 「보건학 40년— 그 좌표와 전망」이란 주제로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2천년대를 위한 국민보건의 과제, 보건의료제도 및 보건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국인 상병상태의 전망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變>



12월 회보를 읽고

詩나 茶道처럼

인생의 향기도 담아주길



동창회보가 한글화되고 가로쓰기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을 비롯한 가족, 주변의 동문들이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동문들간에 서로 관심을 갖고 화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詩나 茶道처럼 「인생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지금보다 자주 나와주었으면 한다. 동창회보가 너무 학술적이고 시사적이어서는 자칫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이다.

金基玉(40년 師大入) 명경회회장

회보를 만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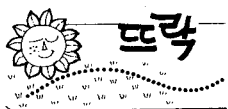
훈훈한 體氣 느낄 수 있게



전체적인 동창회보의 변모를 새 편집진용 구성후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가족같은 동창회를 느끼게 하는 동문부부 1백쌍의 사진이 컬러로 포진한 동창회보가 어떻게 교정을 멀리 떠나서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마음의 고향같은 정이 담긴 분위기를 일깨울 수 있을런지. 동창회보를 만지면 훈훈한 體氣를 느낄 수 있게 했으면 더욱 좋겠다.

동창회 활동 보고난도 간결 명료해졌지만 너무 공식적이고 기 관행사 위주로 담고 있다. 명사의 「느티나무광장」기고도 좋지만 뻔어나는 젊은 동문의 이색적인 결실을 담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회적 신분위주의 「동정」난도 더 다양하게, 「모교소식」도 확대 하고 서울시 중심뉴스에서 탈피, 세계각처에서, 각 지방에서 온 소식을 더 실었으면 한다.

元佑鉉(65년 法大卒)고려대학교수



노래로 봉사해온 50년

지난 해는 광복50주년등 크고 작은 많은 기념행사가 연이어 있었다. 나도 이런 저런 행사에 참여해 보았지만 지나간 「50년」이란 말에 그때마다 여러모로 뼈에 사무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은 「인간 삶의 가치관 비중을 어디에 다 두고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의문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른데 그것은 타고난 운명으로 살아나가기 때문일까? 같은 과목을 전공한 사람끼리도 서로가 가는 길이 모두들 다르니 말이다. 법과를 졸업한 사람이 누구나 꼭 법관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같은 음악을 전공하고도 교수나 화려한 무대생활을 못하고 영뚱한 직업을, 아니 저 사람이 무엇을 전공했는지 알쏭달쏭한 동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화려한 무대 마련 없어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아온 우리 세대, 국민학교때부터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내리 전쟁의 와중에서

공부를 해야 했고 일제치하에서는 강제로 姓을 바꿔야 했으며 일본어를 「국어」로 배우면서 우리말은 「조선어」라는 시간표에 따라 불과 몇시간만 배웠으니 나라와 조상의 자존심을 짓밟힌 그 억울함을 어찌 다 표현하리오.

그러기에 그 시대 사람들은 일본사람들 눈치만 보며 살았기 때문인지 동포끼리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애국심과 동포애와 단결을 배웠다. 그런 바탕이 잠재해 있었기에 우리 세대는 정의롭게 사랑과 봉사를 목적으로 강인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마음의 병도 음악으로

음대를 졸업한 후부터는 KBS 음악 PD로 눈 코 뜰새없이 바빠 활동하면서 자원봉사 또는 요청에 따라 음악 학도들을 위해서, 음악 방송을 위해서 봉사했으며 방송국을 그만두고서는 더욱 열심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고 뛰어가서 봉사에 응했다.

회고하다보니 아마 지금까지 수백번 노래를 했었던 것 같다. 결혼·회갑·교회



金明備(55년 音大卒)한국성악회이사

축가, 일선장병위문(백마고지, 편지봉, 각 사단등-남성들도 가기 어려운 곳인 최전방이었음), 고아원, 양로원, 근로여성 위로방문 하는등 교회는 물론 여성단체 국내외 총회 또는 대회때, 국제로타리 국내외 대회때 독창으로 친선봉사한 바 수십차례 있었으며 외국교회 순회공연, 국내성악발표회등에도 적극 참여했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음악요법 자원봉사활동도 지금까지(20여년간) 하고 있다. (일본예술요법학회서 국제상도 받았음)

자원봉사를 참으로 마음을 비우고 남을 돕고 착하게 산다는 정신으로 겸손하고 편안하게 보람된 경지를 체험하는 철학적 인생의 길이라고 깨닫고 있기에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로 생을 마칠까 한다.

방송진행의 진짜 묘미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내게 방송 일 하는 재미가 어떤가를 묻는다.

방송진행이라는 일 자체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마다 그 한 회분씩이 새로이 제작되는 「일회성의 반복」이라는 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선함이 늘 유지되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난 「일하는 재미가 꽤 크다」는 식의 대답을 줄곤 하곤 한다.

일회성으로 신선함 유지

더구나 내 경우 비교적 일찍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재학시절에 전공인 화학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방송쪽에 이미 발을 들여 놓았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정신적 부담감없이 일을 시작했었고 또 「내가 잘 알지못하는 새로운 일의 분야」라는 생각에서도 아주 흥미롭게 방송이라는 일로 접어들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슬그머니 시작한 방송

진행자로서의 경력이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니, 내 맘은 아직도 미숙한 점 투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남들은 나를 신참으로 보아주지 않는 그런 과정중에 놓여 있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중간 중간 뒤돌아 보니, 방송 일을 하며 느낀 가장 큰 재미,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는 내가 얻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그간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가진 수많은 이들과의 만남이 아닌가 싶다.

사실 요즘의 방송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추세라 작년의 예만 보더라도 30개 채널의 케이블TV가 문을 열었고, 통신위성이 쏘아올려져 위성방송시대의 서막이 시작되었으며, 또 멀티미디어의 등장은 그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가.

그러나 제 아무리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고 방송형식의 엄청난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 그 틀을 채워줄 내용은



金沈珠(89년 師大卒)방송인

앞으로 몇 세기(?)간은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다.

시청자와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중개하는 입장에서 직접 얼굴을 가까이 대하고 갖는 사람과 사람과의 소중한 만남.

그것이 각고의 노력끝에 얻은 다른이의 귀감이 될 만한 이와의 만남이건, 혹은 누가 들어도 수궁이 같만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와의 만남이건 내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고 이 일에 재미를 붙이고 뛰어돌만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능력이 되는 한은 꾸준히 또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워갈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구인회

졸업40주년 기념 「老醫들의 獨白」퍼내 고아원과 자매결연 부모역할도

구인회에는 「인술을 베푸는 의대 9동기회」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역세게 운이 없는 세대」라고 평한다. 일제 식민지에 태어나 1년만에 만주사변이 있었고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등 전쟁과 가난속에서 격동의 세월을 보내야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23년 차 선배를 하늘같이 모셨으니 이제는 나 도 선배대접 좀 받아야겠다는 소박한 바람은 세월의 변화속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예과 2년에 들어서자 난데없이 의사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가 생겼다.

老醫는 노련한 의사?

이쯤되면 이들의 푸념도 이해가 갈만 한데 최근에는 졸업40주년을 기념해 「老醫들의 獨白」이라는 문집을 펴냈다. 趙宗允동문은 「老醫란 노련한 의사인가, 늙은 이 의사인가. 우리 老醫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라고 호기있는 글도 썼지만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은 동기들을 상대로 현상모집한 결과 元仲喜동문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됐기 때문이다. 서예에 일가견이 있는 金鍾憲동문이 표제를 썼고 의학관련지

만평의 단골인 후배 金眞浩동문이 의대 상징인 시계탑의 겨울정경을 그렸다.

이렇게 여러사람의 정성으로 세상 빛을 본 이 책에는 「21살에 혼자 월남해 42년만에 부모님 묘앞에 섰을 때는 할말이 무척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앞에 서니 죄송합니다를 되풀이할 뿐이었다」는 盧鎔冕동문의 아픔도 있고, 「어떤 행사에 참석했을 때 좌석순위가 30대의 젊은 관검사, 그 다음이 40대 군수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老醫는 말석에 앉는 것을 보고 면장이라도해야 대접받는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나는 다시 태어

나도 의사가 될 것」이라는 李善鎬동문의 욕심없는 마음도 담겨 있다.

1백회 골프로 노익장 과시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만큼 同會의 활동도 다양하다. 지난 66년부터 동기회보를 발간해왔고 골프모임은 최근 1백회를 돌파했다. 졸업기념때마다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다니다보니 국내는 안가본 곳이 거의 없을 정도여서 이번 일본 큐슈여행 때 찍은 것까지 모아 사진첩도 제작할 계획이다. 노장에 속하지만 의대동창회장 배 테니스대회에서 준우승은 놓쳐본 적이 없는 구인회 회원들은 매년 공로상, 근면상, 노력상을 선정해 시상하는 한편 동창회기금, 장학금은 물론 작고한 동기를 위한 묘비기금도 꾸준히 마련해 왔다. 특히 고아원과 자매결연해 그들의 부모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도 同會의 또다른 면이다.

회원들의 활약도 대단해서 졸업30주년 기념으로 수필집 「새튼이」를 낸 후, 최근 「배꼽의 미소」를 출간한 文國鎭동문은 학술원상을 수상했을 정도의 실력이고, 李逢夏동문도 최근 수필집 「이 사회에 청진기를 대보나...」 「덤으로 살아온 46년」을 출간한 바 있다.

한편 무기명 투표로 자랑스러운 서울 의대인상 수상자로 뽑힌 張潤錫동문은 국내 최초로 시험관 아기 출산에 성공해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시 문화상등을 수상했고, WHO 서태평양지구총장으로 있는 韓相泰동문은 세계속의 서울의대인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金昇元동문, 세종문화상을 받은 金相仁동문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志)



졸업40주년 기념으로 일본 큐슈로 여행을 다녀왔다.

권우회

70년대 대학연맹전서 종합3위 거둬 아마추어 태권도 진흥에 크게 기여

「拳友會」는 50년대 당시 안국동 「청동관」에 모여 함께 운동했던 몇몇 태권도 동호인들이 65년 李鍾哲(66년 文理大卒) 동문을 구심점으로 문리대, 체육교육과 중심의 사대, 그리고 치대, 의대, 약대, 공대, 수의대 동문들이 뭉쳐서 탄생된 모임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어김없이 함께 모여 구슬땀을 흘린다는 귀동냥에 同會를 찾자간 12월18일, 嚴冬의 모교 태권도 체육관에서는 뜨거운 훈련의 열기가 가득했다.

초대 창립 멤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同會 역사의 산증인인 金基周(58년 文理大卒)동문은 「그 어떤 동호회에도 40년 연혁의 우리 권우회처럼 유구한 것이 없을 것」이라며 자랑스레 말했다.

태권도와 함께한 그 세월 만큼이나 이 모임의 회원들도 유단자만 3백여명을 넘는다 하니, 同會의 유대의식이 어느 모임 못지않게 남다른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3백여명의 간 큰 사나이들

흔히들 단합과 친목을 위해 운동이 적국 권장될 만큼, 전공이 다양각색으로 다

른 3백여 拳友들의 情과 義를 한데 모으는 것으로 同會가 사랑하는 태권도 만큼이나 유별난 것이 없다고 한다. 저마다 태권도로 단련된 큰 간을 가진 사나이들, 同會의 술좌석엔 「노상강도 추격전」, 「택시강도와와의 한판 승부」 그리고 「종로 5가 강패 소탕」 등 무용담 한가지쯤은 여지없이 안주에 오른다는데, 그 맛에 취해 40년차 손주벌 막내들의 선배님 소리에도 서울고대 총장까지 역임한 金基周동문은 그저 즐겁다.

그리고 同會의 李光熙(68년 文理大卒)동문은 그 어떤 사범(Master)보다도 도예가 깊은 듯, 우리나라의 태권도 유래에 서부터 변천사등 그 설명이 유창유수라 책 한 권은 넉넉히 쓸 정도 같았다.

시장터에선 차력사로 오인

동송동 캠퍼스 시절, 한때 음대 건물과 같이 쓰던 체육관 기합소리에 「시끄럽다」 소리를 골잡하던 음대학생을 「매미」라 불렀으며 운동하던 그때의 에피소드와 마치 태권도 운동 모습이 저자거리의 차력사 쇼처럼 비춰보였다던 당시 어려웠던 환경. 그러나 62년 전국대학태권도



74년 불암제에서 시범을 마치고.

연맹의 창립과 더불어 70년대 대학연맹전에서 종합 3위 입상, 최근 某동문의 개인전 우승등 다채로운 전적을 통해 모교의 대학 아마추어 태권도 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초창기 사범도 없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며 곳곳이 지켜온 「拳友會」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현재 자체 기금으로 재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는 「拳友會」.

앞으로 태권도의 저변 확대를 통해 서울대 동문들의 건강과 단합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희망이라는 同會의 高英佑(62년 醫大卒·산부인과원장)회장은 拳友會 가족으로 鄭逸和(65년 文理大卒·한국일보 편집위원), 朱京植(66년 藥大卒·前보 건복지부차관), 韓榮成(63년 文理大卒·前과기처차관), 李種律(64년 文理大卒·국회 사무총장), 安秉圭(61년 文理大卒·前국회 농산위원장), 趙容直(64년 文理大卒·국회 의원), 千炳得(63년 獸醫大卒·축협감사) 동문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燁)



지난 90년 徐在永동문 초옥에서.

문단

新刊

■續 永遠한 꽃의香氣
—李應百 編

모교 명예 교수이며 한국수필문학진흥회장, 전통문화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국어학

자 李應百(49년 師大卒)동문이故人이 된 부인 閔瑛媛여사 2주기를 맞아 續編을 펴냈다.

지난해 1월 본보를 통해 부인에 대한 애절한 경모의 심정을 소개, 동문들의 심금을 울린 바 있는 李동문은 이번 속편에서 부인이 평소 연구와 정성을 다해 개발한 음식솜씨를 한국·일본·중국·서양음식순으로 소개함으로써 다시한번 부부의 극치를 엿볼 수 있게 꾸몄다. (문양사·비매품)

■서울대교수의 대학이야기
—趙錫俊 著

모교에 재직하고 있는 趙錫俊(57년 大學院卒·명예교수)동문이 3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수의 생활과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모교의 실제모습을 소개했다. (삼과삼·값 6,000원)

■韓國民譚의 深層分析
—李符永 著

모교 의대 교수이자 국제분석심리학회 정회원인 李符永(59년 醫大卒)동문이 옛

날 이야기에 나타난 한국인 심성의 특성을 넘어 존재하는 인간의 보편적, 원초적 심성의 상징을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를 제시했다. (집문당·값 12,000원)

■두려움의 혼돈속에서
—文鍾洙 著

구립 20일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된 文鍾洙(63년 法大卒)동문이 시집을 내놓

았다. 文동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한국기독교청년회 이사장, 「시대시」 동인으로 활동하며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참시인으로 거듭나고자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다. (마음·값 6,000원)

■주방으로 떠난 치과의사
—李貞夏 著

무농약 유기농산물로만 음식을 만드는 서초동 「아랫목」의 경영자이자 주방장인 李貞夏(79년 齒大卒)동문의 이야

기. 나이 마흔에 「잘나가는 의사」를 그만두고 주방장을 선택한 李동문의 재미료를 놓지 않은 담백한 고백을 읽을 수 있다. (차림·값 6,000원)

(정리=安興變기자)



崔秉常 이화여대 교수

장애인 스키캠프등 축제준비 한창



지난 10월22일 용산 가족공원에서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곳에 눌러앉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름하여 「황소걸음 가을줄기 예술축제」 그리고 사랑 더하기 콘서트. 이름이 말해주듯이 느릿느릿 꾸준히 걷는 걸음으로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홀트복지타운, 척수장애인모임, 서울시립 정신지체인 복지관 등에서 온 참가자 중에는 바깥에 처음 나와본 사람이 의외로 많았으니 그 설렘과 기쁨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도 남음이 있다.

지난 여름에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열린 「황소걸음 해변 예술제」에서 모래조각전 심사위원을 맡은 후, 이번 행사의 대회장을 맡은 崔秉常(61년 美大卒·이화여대교수)동문은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오히려 배우는 점이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를 위해 가수 유 열, 신형원등 연예인이 무료출연해 주었고 용인대와 한신대 학생들은 땀흘리면서 연습한 휠체어 에어로빅, 수화공연을 선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崔동문이 장애인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70년대 이화여대 교학과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간 것이 계기가 됐다.

이달 말부터 2월말까지는 전북 무주에서 「하얀 눈나라에 온 황소걸음 눈 예술축제」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눈을 이용한 놀이미술, 작가와의 만

남, 장애인 전문스키캠프, 전국사진촬영대회, 특별공연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열리는 「황소걸음 축제」를 준비하는데는 막대한 인원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만큼 보람도 크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작은 사랑, 작은 나눔이 어느때보다 소중한 시기다. 서울대인의 뜨거운 가슴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우리 모두 새해를 「사랑 나누기」로 시작해보자. (한국장애인예술교육회 532-6263) (志)



작년 가을축제에는 장애인들도 공연에 참가했다.

“새해에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理事: 95년 10월 4일 ~ 12월 15일 · 一般: 95년 11월 4일 ~ 12월 15일〉

회 장 단

▲ 명예회장 崔主鎬 = 30만원

이 사

◇ 社會科學大學

▲ 김석웅 ⑥ 부산동의대교수
▲ 남 용 ⑦ LG그룹비서실장
▲ 장지상 ⑧ 경북대교수

◇ 家政大學

▲ 백희영 ⑨ 서울대교수
▲ 이영주 ⑩ 서울사대부여중
▲ 최규련 ⑪ 수원대교수

◇ 看護大學

▲ 이정자 ⑫ 충무병원
▲ 전양금 ⑬ 서울사대부중

◇ 經營大學

▲ 고영채 ⑭ 공인회계사
▲ 김형철 ⑮ 한국산업증권부장
▲ 이종욱 ⑯ 한국외국어대교수
▲ 정찬우 ⑰ 공인회계사

◇ 工科大學

▲ 강 관 ⑱ 코오롱연구소장
▲ 강수석 ⑲ 국방과학연구소장
▲ 고국원 ⑳ 정일ENG기술고문
▲ 공병채 ㉑ (주)윤영대표
▲ 구윤희 ㉒ (주)연금사대표
▲ 구재완 ㉓ 신경건설상임고문
▲ 권병실 ㉔ 삼성전자주미디어
▲ 기영환 ㉕ 명지고교연구주임
▲ 김낙성 ㉖ 한전CATV위원회
▲ 김노수 ㉗ 서울대명예교수
▲ 김덕재 ㉘ 중앙대교수
▲ 김도심 ㉙ 신아화학공업고문
▲ 김동규 ㉚ 서울시립대교수
▲ 김상진 ㉛ (주)대우이사
▲ 김상희 ㉜ 태영석회대표
▲ 김석기 ㉝ 대경기계기술대표
▲ 김석현 ㉞ 우진산전부사장
▲ 김선구 ㉟ 한국수자원공사
▲ 김성철 ㊱ KIST교수
▲ 김연식 ㊲ (주)유공부사장
▲ 김영하 ㊳ 수자원기술공단
▲ 김유도 ㊴ 천일하이테크대표
▲ 김익근 ㊵ 지지콘설턴트대표
▲ 김정철 ㊶ 정림건축회장
▲ 김중찬 ㊷ 코아무역대표
▲ 김지섭 ㊸ 한전기공고문
▲ 김태섭 ㊹ 신아조선대표
▲ 김형태 ㊺ 삼인유니코라스
▲ 김홍훈 ㊻ 前해군대령
▲ 문동주 ㊼ 국토개발연구소장
▲ 박경섭 ㊽ 일국기연사
▲ 박만식 ㊾ 충남대교수

동문여러분의 신속한 연회비 납부는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본회는 그동안 동문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후배들의 장학금을 비롯해 교수연구비,
모교의 각종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 박병길 ① 태화금속대표
▲ 박창선 ② 삼성종합건설
▲ 백해동 ③ 신강ENG사장
▲ 서병은 ④ 다모아제지부사장
▲ 서용부 ⑤ 경방기획관리실
▲ 서인원 ⑥ 성일콘크리트사장
▲ 성용모 ⑦ 엔지니어링서비스
▲ 송재근 ⑧ 대신전기판매대표
▲ 송재문 ⑨ (주)나소대표이사
▲ 송준환 ⑩ 의료보험조합부장
▲ 신승철 ⑪ 동아건설턴트상무
▲ 신종건 ⑫ 현대석유화학전무
▲ 안규영 ⑬ 현대화보대리점
▲ 안삼덕 ⑭ 송추관광개발대표
▲ 양영모 ⑮ (주)유공관리담당
▲ 양재균 ⑯ 신소재사업부전무
▲ 오 명 ⑰ 前전설교통부장관
▲ 오세철 ⑱ 서울ENG대표
▲ 우무상 ⑲ 세한ENG부사장
▲ 원준희 ⑳ 신우ENG고문
▲ 유강선 ㉑ 종합기술개발공사
▲ 유상희 ㉒ 대한광업진흥공사
▲ 유인영 ㉓ 前대한전선대표
▲ 유재운 ㉔ 라이트모드사장
▲ 유철진 ㉕ 안전공단수석위원
▲ 윤동섭 ㉖ 한성도료사장
▲ 윤재건 ㉗ 삼우기술단부회장
▲ 이기종 ㉘ 전주주석대학교수
▲ 이덕선 ㉙ 前대전EXPO
▲ 이동린 ㉚ 헬모코리아상무
▲ 이봉주 ㉛ 현대종합금속대표
▲ 이성규 ㉜ 삼원정밀금속대표
▲ 이영학 ㉝ 前서울산업대교수
▲ 이유진 ㉞ 한국은행창원지점
▲ 이윤우 ㉟ 삼성전자사장
▲ 이정일 ㊱ 현대미포조선소
▲ 이종성 ㊲ 대우자동차영업부
▲ 이찬주 ㊳ 한국과학문화원
▲ 이창규 ㊴ 대성공업개발전무
▲ 이택우 ㊵ 진양공업사장
▲ 장호남 ㊶ KAIST교수

▲ 전영우 ① (주)대원대표
▲ 전용진 ② 우진산업사장
▲ 전재풍 ③ 한전원자력건설처
▲ 정규동 ④ 삼보컴퓨터상무
▲ 정진택 ⑤ 동서교역회장
▲ 조규대 ⑥ 경인상사대표
▲ 조규식 ⑦ 공군사관학교교수
▲ 조성용 ⑧ (주)데이콤전무
▲ 조장희 ⑨ KAIST교수
▲ 조재문 ⑩ 인하대명예교수
▲ 주재욱 ⑪ 세일종합기술공사
▲ 진국봉 ⑫ 한국이집업대표
▲ 차경모 ⑬ 한국다반회장
▲ 최대현 ⑭ 태산정밀회장
▲ 최돈웅 ⑮ 국회의원
▲ 최용일 ⑯ LG정보통신상무
▲ 최태영 ⑰ (주)레이캬상무
▲ 한준수 ⑱ 선한기업대표
▲ 한형수 ⑲ 제일합섬부회장
▲ 홍성현 ㉑ KBS취재주간
▲ 황규승 ㉒ 고려대교수
▲ 황덕연 ㉓ 국립건설시험소

◇ 農科大學

▲ 고광출 ① 서울대교수
▲ 김규환 ② 前에산농업전문대
▲ 김병환 ③ 흥농중요전무
▲ 김상원 ④ 前대법원대법관
▲ 김석동 ⑤ 농진청작물시험장
▲ 김재정 ⑥ 前한국종묘협회
▲ 김종욱 ⑦ 공주대교수
▲ 김진팔 ⑧ 前미성농약대표
▲ 김철수 ⑨ 상주산업대학교수
▲ 김현구 ⑩ 언론중재위원회
▲ 박경원 ⑪ 대전시교육감
▲ 박양자 ⑫ 서울대교수
▲ 박용욱 ⑬ 두산기술원위원
▲ 손기성 ⑭ 옥전상사대표
▲ 손병암 ⑮ 강원대교수
▲ 심재철 ⑯ (주)니퍼맨이사
▲ 오봉국 ⑰ 서울대명예교수

▲ 유순호 ① 서울대교수
▲ 유한웅 ② 동방유광부사장
▲ 윤석룡 ③ 쌍용ENG전무
▲ 이기명 ④ 경북대교수
▲ 이재기 ⑤ 동암토건대표
▲ 임영준 ⑥ 상지대교수
▲ 장동섭 ⑦ 전남대교수
▲ 정만재 ⑧ 충북대교수
▲ 정운환 ⑨ 일성화학대표
▲ 조성환 ⑩ 경상대교수
▲ 허문희 ⑪ 서울대명예교수
▲ 홍순근 ⑫ 인삼연구연구원

◇ 文理科大學

▲ 강성위 ① 한국외국어대교수
▲ 고영재 ② 한겨레신문편집장
▲ 권오술 ③ 한국일보기조실장
▲ 김세종 ④ 유경회고문
▲ 김세준 ⑤ 前제일스포츠센터
▲ 김시중 ⑥ 前과기처장관
▲ 김용일 ⑦ 카톨릭대교수
▲ 김형효 ⑧ 정신문화연구원
▲ 나병욱 ⑨ 경북대명예교수
▲ 노명호 ⑩ 서울대교수
▲ 류종택 ⑪ 대구경북개발
▲ 문승익 ⑫ 중앙대교수
▲ 문찬홍 ⑬ 센매드코리아
▲ 박 실 ⑭ 국회의원
▲ 박기덕 ⑮ 세종연구원위원
▲ 서재만 ⑯ 한국외국어대교수
▲ 송병섭 ⑰ 엘진기계전무
▲ 송재희 ⑱ 前동성중학교
▲ 송한호 ⑲ 민족통일중앙協
▲ 양용화 ⑳ 제주여고교감
▲ 여정동 ㉑ 서울대교수
▲ 원용대 ㉒ 동보(주)회장
▲ 윤명중 ㉓ 한국방송기자클럽
▲ 은영배 ㉔ 세무사
▲ 이남수 ㉕ 동덕여고교감
▲ 이상수 ㉖ KAIST교수
▲ 이상진 ㉗ 경남기업회장

▲ 이채우 ① FORTWEEL
▲ 이한구 ② 성균관대교수
▲ 임병석 ③ 前국제문제연구소
▲ 장효상 ④ 데이터정보회장
▲ 정 랑 ⑤ KBS사회교육방송
▲ 정운학 ⑥ 前북한문제연구소
▲ 태기표 ⑦ 前국정교과서
▲ 하명희 ⑧ 연합통신전주지국
▲ 한화갑 ⑨ 국회의원
▲ 홍남표 ⑩ 한국국토개발이사

◇ 美術大學

▲ 노재우 ① 인천교대교수
▲ 윤미자 ② 중문관광어촌대표
▲ 전 준 ③ 서울대교수

◇ 法科大學

▲ 강상원 ① 前전북도지사
▲ 강성달 ② 국회건설위원회
▲ 경종철 ③ 과학기술처국장
▲ 고천철 ④ 인천지검검사
▲ 광동현 ⑤ 변호사
▲ 광영철 ⑥ 수원지검성남지청
▲ 권영훈 ⑦ 변호사
▲ 권호장 ⑧ 과천시장
▲ 김 준 ⑨ 한신증권고문
▲ 김대웅 ⑩ 대구지검차장
▲ 김상갑 ⑪ 한국중공업이사
▲ 김성수 ⑫ 오양수산회장
▲ 김승진 ⑬ 변호사
▲ 김영훈 ⑭ 송실대교수
▲ 김용화 ⑮ 호남대교수
▲ 김용렬 ⑯ 변호사
▲ 김인규 ⑰ 변호사
▲ 김재철 ⑱ 변호사
▲ 김정학 ㉑ 거제시법원판사
▲ 김종대 ㉒ 부산지법부장판사
▲ 김주완 ㉓ 우성건설상무
▲ 김진무 ㉔ 산요반도체고문
▲ 김창희 ㉕ 창경실업대표
▲ 김창희 ㉖ 산업투자자협회장
▲ 김태기 ㉗ 동남리스감사
▲ 김학운 ㉘ 대구고법판사
▲ 김학재 ㉙ 수원지검차장검사
▲ 김호현 ㉚ 변호사
▲ 김홍현 ㉛ 변호사
▲ 나형수 ㉜ 변호사
▲ 민수홍 ㉝ 중앙일보뉴스국
▲ 박석인 ㉞ 금호건설부장
▲ 박선우 ㉟ 장훈학원이사장
▲ 박성달 ㊱ 前청와대행정수석
▲ 박영달 ㊲ 前원자력연구소
▲ 박영수 ㊳ 광주은행장
▲ 박원철 ㊴ 변호사
▲ 박재철 ㊵ 수출입은행부장
▲ 박종성 ㊶ 서울지법행정부원
▲ 박준서 ㊷ 연세대신학대학원
▲ 변광순 ㊸ 신원전자대표
▲ 봉중현 ㊹ 前장기신용은행장

▲서남수⑤태성사사장
▲손광수⑦신한銀경영혁신팀
▲손기선⑦변호사
▲손종석④前서울시철도공사
▲송영필⑥외환은행이사
▲신강순⑤충무처부이사관
▲심난섭②변호사
▲심병련⑦창원지법부장판사
▲심상명④부산고검고검장
▲심연택⑦변호사
▲안민환②유창공영부사장
▲안병훈⑥조선일보전무
▲안종윤⑤한양대교수
▲안진석⑦변호사
▲양창덕②DIC대표이사
▲오성계⑦변호사
▲오재덕⑦한화그룹부회장
▲오재선⑥국립세무대교수
▲우익원⑤경남유통대표
▲우정권⑥변호사
▲유각중⑦前석유개발공사
▲유근원⑦KAL시스템담당
▲유해덕⑦수원대교수
▲유형근⑥한국신용정보사무
▲윤탁⑥YUROS무역
▲윤주원⑤덕양산업대표
▲윤준원⑦고려통운대표
▲이웅⑥변호사
▲이계전③아마기시즘생활
▲이관형⑥변호사
▲이교훈⑥제주은행상임감사
▲이동춘⑥포항제철부사장
▲이상혁⑤한국증권금융사장
▲이선우⑦변호사
▲이승한⑥대원공사대표
▲이영덕⑦한솔도시락대표
▲이용희④한국상업은행상무
▲이인재⑦부산지법부장판사
▲이인제⑦경기도지사
▲이정재⑤대전EXPO
▲이충호⑦한일시멘트이사
▲이한구⑥변호사
▲이홍서⑥국제화재해상보험
▲임광수⑥문체부저작권과
▲임대규⑦변호사
▲임상순⑦변호사
▲장기욱⑥국회의원
▲장동완④변호사
▲장만호⑦일산지점장
▲장유석⑥국민銀구로지점
▲전재기⑥변호사
▲전화수⑦동양화재해상보험
▲정경택⑦변호사
▲정귀호③대법원대법관
▲정해운⑦경기대교수
▲조경환⑦현대종합상사부장
▲조동원⑤국제로터리지국장
▲조성윤④외환할부금융사장
▲진영배⑥태영레저대표
▲차정일⑥변호사
▲천중인⑥농촌진흥청축산연구
▲최규성⑦동주무역상사대표
▲최동섭⑥산업개발연구모
▲최병학⑥서울고법부장판사
▲최영광④법무연수원장
▲최윤식⑦신신상사이사
▲최지호⑦수출입銀차장
▲최한욱⑥일일기획대표
▲한상술④서울전산학원장
▲한수복⑦변호사
▲한영광⑦대주건설전무
▲한정수②前충남지사

▲현경대④국회의원
▲현천옥⑦변호사
▲홍석조⑦법무부검찰2과장
▲홍순표⑦경기도지역경제국
▲홍승환④前투자금융협회
▲홍학표②건국대교수

◇師範大學

▲진명자②동양공업전문대
▲강규석②강릉대총장
▲강병주⑥대연고교장
▲곽규호⑥안양여고교장
▲곽철규⑦충북대교수
▲구현희⑤세무대교수
▲권태원④도산학술연구원
▲김난수④광주대교수
▲김석현⑥한양대교수
▲김영식⑦前대한교원공제회
▲나도승②금강권연구소장
▲노두호⑤금성고교장
▲목영부⑤경원대교수
▲문병관④한염해운회장
▲문현상⑥조선대교수
▲박남혁⑥서울과학고교원
▲박장순⑦제일영동학원장
▲박종국⑦경희대교수
▲서평웅⑥서울과학고교원
▲신용일⑦인하대교수
▲양동석⑥대한교원공제회
▲우세홍⑥서울보건전문대
▲유병림⑥서울교대명예교수
▲윤덕중⑥경남대교수
▲윤용혁④(주)대성대표
▲이광정⑥경원대교수
▲이봉익⑥청주교대교수
▲이영로⑤前이화여대교수
▲이영수⑥교수신문발행인
▲이일철⑦前인천교대교수
▲이종원⑦외과의원장
▲임창규⑥상명여대부속고교
▲전동기⑤반포고교장
▲전영우⑦수원대교수
▲정영근⑦서울대교수
▲조건상⑥前충북대교수
▲조태경⑤공주사대교수
▲최완기⑦이화여대교수

▲최정신⑦성심여대교수
▲하순봉④국회의원
▲허석구⑦고려냉장회장
▲허판예⑥공지중교장
▲형기주⑦동국대교수

◇商科大學

▲배갑순④상도주유소사장
▲송주식④한국볼트공업회장
▲최명규④前대전투자금융
▲강철규⑥서울시립대교수
▲강호석⑥부일상호신용금고
▲고인석④(주)삼양전주공장
▲고학모⑥대주무역사장
▲권종선⑥前야쿠르트유업
▲권태인④前종합기술공감사
▲권혁승⑦한국일보고문
▲김기일⑥前중앙투자감사
▲김동한⑥신풍건설산업대표
▲김방지②공인회계사
▲김사철⑥(주)풍산감사
▲김상훈⑥파스퇴로유업대표
▲김신정⑥대우자동차기획실
▲김영석⑥통일원고문
▲김영찬⑥경안상호신용금고
▲김용렬⑤유성기업사장
▲김재현⑥국제화재해상보험
▲김정철⑦금호렌트카부장
▲김정현⑤대신전원회장
▲김종근⑥비즈니스다이내믹
▲김중서⑥세보기계대표
▲김중호⑤회성목재대표
▲김철홍⑥대우정밀공업전무
▲나길웅⑥한국은행감독원
▲박대평⑥대신개발금융이사
▲박동순⑥중앙리스대표
▲박병준⑦강원산업대표
▲박성석⑥한라자원대표
▲박종한⑤단국대교수
▲배창현⑥효성물산전무
▲백승조⑦조흥증권대표
▲석학진④코오롱그룹부회장
▲신세길⑥삼성물산대표
▲안용근⑤인하대교수
▲양재수⑥공인회계사
▲양홍모⑥前성균관대교수

▲오우현⑥축협중앙회부회장
▲우용해⑥Y.H.WOO회장
▲원호출⑥대구투금사장
▲유대진⑥옥광상사대표
▲유희춘⑤한일화학대표
▲이근경⑦재정경제원심의관
▲이동대⑥前서울신탁은행
▲이상호⑥한진건설전무
▲이종각⑥대한제분회장
▲이종용②(주)유공고문
▲이중관⑥前(주)태화대표
▲이진우⑤태라양행회장
▲이창수⑥관동대교수
▲이창웅⑥화남상사대표
▲이태규⑦충남대교수
▲이효중⑥범양방방부사장
▲임재표②하남주유소사장
▲장순규⑤아리통상대표
▲전창기③유유산업대표
▲정기준④서울대교수
▲제정오③한국은행인사부
▲조대연③前극동해상대표
▲조택구⑤호신콘크리트전무
▲차우상⑥우남기업대표
▲채오병⑥동양시멘트대표
▲최운석⑦두산상사이사
▲한수길⑥롯데제과전무
▲한이현⑥前청와대경제수석
▲한재학⑦경남종합금융부장
▲허만귀⑤경남종합금융사장
▲홍영극⑥조선내화전무

◇獸醫科大學

▲권동일④한국화이자과장
▲김우호⑥과천연구소고문
▲김운찬⑦코리아메디아대표
▲김재원⑥조양축산회장
▲김조웅⑦고려동물약품사장
▲양기천③제주대교수
▲양영섭⑤일양피혁수의사
▲윤무중⑥한국야쿠르트유업
▲차종상⑥중앙가축약품대표
▲채수운⑥축협문정동지점

◇藥學大學

▲고대승⑥영일약품전무

▲김동춘⑤前대원제약부회장
▲김영호⑤제주도공직자촉
▲김종서⑥을지병원약제과장
▲문병우⑦보건복지부과장
▲문승만⑥제일약국
▲민주홍⑤대성기업대표
▲박원상⑥일신당약국
▲서정진⑤신풍제약연구소장
▲송우영⑦명문제약전무
▲오성환④과연약국
▲이강추⑤前국립보건원장
▲이대갑⑦참약국
▲이순호④보명당약국
▲이완우⑥동국제약상무
▲이윤재③한일약국
▲이정준⑦KAIST교수
▲이태희⑦고려제약기획이사
▲이필량⑦홍익제약대표
▲이환달⑥베림거인젤하임
▲임승중⑦임승진약국
▲임현정⑥삼덕약국
▲장학순⑤신신제약고문
▲조양래⑦(주)태경전무
▲조인형④태광약국
▲지현석⑥대우약품대표
▲한연식⑥세신홍약국

◇音樂大學

▲백낙호④국제음악협이사장

◇醫科大學

▲이수종④산부인과의원장
▲이필영④
▲고형일⑦백병원내과과장
▲곽일룡③서울대교수
▲권칠수③상계백병원부원장
▲김갑득⑦경찰병원신경외과
▲김곤식⑤성보의원장
▲김광원⑦삼성의료원내과
▲김상인⑤인천길병원
▲김성권⑦서울대교수
▲김은덕⑤김의원장
▲김정근⑤장안비비인후과
▲김종박⑥안과의원장
▲남궁은⑤남궁과의원장
▲노수환⑦노내과의원장

「관악홀의자 실명제」

적극적인 참여를!



지난해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동창회관 5층 관악홀 시설보수를 실시하였으나 기존의 3백석 의자가 노후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동문 3백명에게서 각 10만원씩을 기증받아 고급의자를 제작, 의자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애정어린 협조로 현재 1백20여개가 구비되었습니다만 앞으로 1백80여개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대동창회관이 서울대인의 진정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월 출연자 명단 (가나다순)

△姜敏求유성개발대표이사 △金贊均세계일보부사장 △金讚澈청아치과병원장 △金昌悅방송위원회위원장 △朴玉均한국PC통신 △方孝宣세무법인성광사회장 △白文基예술원미술분과위원회회장 △辛承原서울대대학원 △安哲浩범아엔지니어링회장 △尹相澈수정약국대표이사 △李康國코리아케미칼대표이사 △李光魯서울대명예교수 △李壽榮한국산업은행여신관리부 △李喆玉인천중앙길병원장 △張翼龍(주)서광회장 △池昌壽한국알콜산업사장 △玄輝男동아생명보험전무 △洪性萬경향신문논설위원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702-2233

▲도광찬⑦소아과의원장
▲맹국영⑦경상의대임상병리
▲문국진⑤고려대교수
▲박광태⑦산부인과의원장
▲박기홍⑤박산부인과의원장
▲박상용⑥서부병원과장
▲박신근⑥서울직접사병원
▲박종철⑦정형외과의원장
▲방성호⑦동인의원장
▲배종화⑥경희대교수
▲백상호⑤서울대교수
▲서동엽⑦경찰병원일반외과
▲서홍규⑤前안성의원장
▲선우대환⑦선우이비인후과
▲손인⑦강남병원내과과장
▲송정상⑦경희대교수
▲송창섭⑤노원을지병원
▲안돈희⑥국립의료원과장
▲엄용의⑥서울대교수
▲오국근⑤오이비인후과의원
▲유경상⑦대화외과의원장
▲유영구⑤신경외과의원장
▲윤충⑥경희대교수
▲윤병학⑤홍콩생명부속의원
▲윤수중⑦신경정신과의원장
▲윤택구⑤원자력병원
▲이동호⑦한양대교수
▲이석현⑥고려대교수
▲이용섭⑥이산부인과의원
▲이우용⑦한국병원산부인과
▲이정환⑤웅인정신병원
▲이춘식⑥산부인과의원장
▲장봉환⑦신경내과의원장
▲장성호⑦고려대교수
▲장익열④신풍제지대표
▲전시영⑦경상의대교수
▲정규병⑦고려대교수
▲정용화⑥산부인과의원장
▲정태완⑦영일의원장
▲최경진⑦비뇨기과의원장
▲최재득⑥내과의원장
▲최준호⑦피부비뇨기과의원
▲최창식⑥강남성심병원
▲한민동⑦한외과의원장
▲한홍무⑥동아대교수
▲홍정룡⑦동부제일병원장
▲황규엽⑦정형외과의원장
▲황성남⑦중앙대교수

◇齒科大學

▲김영선⑤치과의원장
▲권태국⑥치과의원장
▲김연⑥연치과의원장
▲김경중⑦김치과의원장
▲김계중⑥치과의원장
▲김규문⑥금성치과의원장
▲김기현⑥마산치과의원장
▲김세동⑥치과의원장
▲김영한⑥경남치과의원장
▲문정광⑦문성필치과의원
▲박광선⑦서울위생병원치과
▲박재중⑤서울상아치과의원
▲박종만⑥박치과의원장
▲박준형⑥치과의원장
▲안정모⑦치과의원장
▲염성환⑦지현치과의원장
▲우원회⑦우치과의원장
▲유영세⑥치과의원장
▲윤한석⑥치과의원장
▲이건섭⑤이치과의원
▲이병태⑥치과의원장
▲이영대⑦삼선치과의원장
▲이영재⑤대영치과의원장
▲이운영⑥치과의원장
▲이종문⑥치과의원장
▲이종호⑥전남대교수
▲이지화⑥치과의원장
▲이홍상⑥치과의원장
▲임윤식⑥치과의원장
▲장치영⑥치과의원장
▲정상주⑥치과의원장
▲정원용⑥치과의원장
▲차봉익⑦치과의원장

◇大學院

▲송기연⑦잠사곤충연구소
▲이승한⑥강남성모병원

◇經營大學院

▲유장규⑦삼안상사대표
▲정진영⑦(주)종근당부사장
▲한종덕⑦외환銀당주동지점

◇教育大學院

▲노재봉⑦국립평가원실장
▲이성구⑦명지전문대교수

◇保健大學院

▲강신호⑦동홍한의원장
▲김초강⑦이화여대교수
▲남철현⑥경산대교수
▲박보훈⑦아시아의원장
▲신동우⑦서울우유협동조합
▲이양재⑥대한가족계획협회

◇司法大學院

▲김현철⑥법률구조공이사장
▲유순석⑥前법무부교정국장
▲이원섭⑥변호사
▲정광희⑥변호사

◇新聞大學院

▲김태천⑦고려증권전무

◇行政大學院

▲김권수⑦건설교통부
▲김회동⑥통일원국장
▲박삼규⑦공업진흥청장
▲박용덕⑦통일원실장
▲박준익⑥前롯데칠성음료
▲방극운⑥서울지방노동청장
▲백상승⑦민족통일협의회장
▲이상열⑦삼성경제연구소
▲장석원⑥변호사

일 반

◇人文大學

▲강혜정⑥ ▲김봉택⑦
▲강장석⑥ ▲김희영⑥
▲오정섭⑥ ▲오정택⑥
▲이경희⑥ ▲이동은⑥
▲이미선⑥ ▲이재열⑥
▲이호석⑥ ▲이흥균⑦
▲정영란⑦

◇社會科學大學

▲강병일⑥ ▲강종표⑥
▲구윤철⑥ ▲김용창⑥
▲김윤대⑥ ▲김인수⑥
▲박철민⑥ ▲송현주⑥
▲오대영⑥ ▲유상하⑥
▲유승우⑥ ▲윤여경⑥

▲이종현⑦ ▲정대영⑦
▲정민오⑦ ▲최금락⑥

◇自然科學大學

▲김우식⑥ ▲박동완⑦
▲송대엽⑥ ▲신현준⑥
▲양명룡⑦ ▲우정하⑥
▲이묘재⑥ ▲이승서⑥
▲장찬동⑥ ▲정광철⑥
▲최종선⑥ ▲황치목⑥

◇家政大學

▲강원나⑦ ▲김미정⑥
▲김성은⑥ ▲김향숙⑦
▲노미라⑥ ▲이은희⑥
▲조우현⑦

◇看護大學

▲유병옥⑥

◇經營大學

▲강해웅⑥ ▲김철주⑦
▲남영태⑥ ▲박종완⑦
▲서동식⑥ ▲신용출⑥
▲유진⑥ ▲윤한웅⑥
▲이상완⑥ ▲이희준⑦
▲임완순⑦ ▲정미라⑥
▲최원국⑥

◇工科大學

▲이상익⑥ ▲이재성⑥
▲강길건⑥ ▲강정민⑥
▲고택렬⑦ ▲구자공⑦
▲권기훈⑥ ▲권수원⑦
▲권영두⑦ ▲권오갑⑦
▲권익현⑦ ▲권장혁⑦
▲권창현⑦ ▲권태원⑥
▲김연⑥ ▲김희⑦
▲김기창⑥ ▲김명주⑥
▲김문환⑥ ▲김백영⑦
▲김병욱⑥ ▲김세종⑥
▲김수광⑥ ▲김순민⑦
▲김영호⑥ ▲김왕현⑥
▲김응섭⑥ ▲김춘자⑥
▲김태유⑥ ▲김한덕⑥
▲김희창⑥ ▲나홍⑥
▲나덕주⑦ ▲노희규⑥

▲민경식⑦ ▲민준석⑥
▲박광일⑥ ▲박동환⑦
▲박석호⑥ ▲박승웅⑥
▲박용길⑥ ▲박용찬⑥
▲박원규⑥ ▲박홍성⑥
▲박희균⑦ ▲배재류⑥
▲성덕현⑥ ▲송재평⑥
▲신선호⑥ ▲신중구⑥
▲신충섭⑦ ▲심왕래⑦
▲심용기⑥ ▲심해진⑥
▲안상록⑦ ▲안영배⑥
▲안우희⑥ ▲안종길⑥
▲안호중⑥ ▲어준⑥
▲원제혁⑥ ▲유승빈⑦
▲유준만⑦ ▲유현일⑥
▲이국종⑥ ▲이근섭⑥
▲이낙주⑥ ▲이상원⑥
▲이상춘⑦ ▲이선현⑦
▲이연희⑦ ▲이용각⑥
▲이용주⑥ ▲이은경⑦
▲이응렬⑦ ▲이주완⑥

◇農科大學

▲공재영⑥ ▲구천서⑥
▲권진봉⑦ ▲김경하⑦
▲김관진⑦ ▲김문기⑥
▲김상철⑥ ▲김성봉⑥
▲김세호⑦ ▲김영희⑥
▲김원국⑥ ▲김재윤⑦
▲김치익⑦ ▲남중희⑥
▲민선홍⑥ ▲박동진⑦

◇農科大學

▲공재영⑥ ▲구천서⑥
▲권진봉⑦ ▲김경하⑦
▲김관진⑦ ▲김문기⑥
▲김상철⑥ ▲김성봉⑥
▲김세호⑦ ▲김영희⑥
▲김원국⑥ ▲김재윤⑦
▲김치익⑦ ▲남중희⑥
▲민선홍⑥ ▲박동진⑦

▲박종갑⑥ ▲박종현⑥
▲성봉제⑥ ▲신기철⑦
▲신명철⑥ ▲신상혁⑥
▲신제성⑥ ▲신태식⑥
▲엄광섭⑥ ▲우종구⑥
▲유범식⑥ ▲유영준⑥
▲이강세⑥ ▲이병철⑥
▲이병현⑥ ▲이상욱⑦
▲이성호⑦ ▲이왕우⑦
▲이재원⑥ ▲이종범⑥
▲이중훈⑥ ▲이찬환⑥
▲장기선⑥ ▲장우주⑥
▲전원표⑥ ▲조병찬⑦
▲조원구⑦ ▲주영로⑥
▲채대석⑥ ▲최선덕⑥
▲최죽송⑥ ▲최태동⑦
▲하인환⑥ ▲한상률⑥
▲한찬택⑥ ▲한한수⑦
▲홍봉식⑥

◇文理科大學

▲강대균⑥ ▲강혜원⑥
▲계영자⑦ ▲고문환⑥
▲권순식⑥ ▲김수년⑥
▲김영호⑦ ▲남정이⑦
▲마은영⑦ ▲박기영⑦
▲박동수⑦ ▲박두희⑦
▲박봉기⑥ ▲박정국⑦
▲박재길⑦ ▲박종철⑥
▲박희환⑥ ▲서민석⑥
▲서범자⑥ ▲안사균⑥
▲우영의⑥ ▲유종화⑦
▲유진당⑥ ▲유홍선⑥
▲이석재⑥ ▲이승환⑥
▲이장우⑥ ▲이정란⑥
▲이정호⑦ ▲이충희⑥
▲이태숙⑦ ▲장영태⑥
▲장용선⑦ ▲정국성⑥
▲정익성⑥ ▲정재건⑥
▲정창렬⑥ ▲정태철⑥
▲조모형⑥ ▲조봉계⑥
▲조중완⑥ ▲지경렬⑦
▲차희원⑥ ▲채규희⑦
▲채홍기⑦ ▲천명섭⑥
▲최낙선⑦ ▲최문석⑥
▲최인승⑥ ▲최정현⑥
▲최종만⑥ ▲한영호⑥

▲허남도64 ▲홍영남64
▲황봉운62 ▲황선하69
▲황의박67

◇美術大學

▲권영숙61 ▲김익성85
▲민경우70 ▲박충훈69
▲백영희76 ▲엄광섭60
▲원승덕72 ▲이운식61
▲이춘만62 ▲정경원75
▲최기숙68 ▲하수경74
▲한석란75 ▲한영옥62
▲현숙자60

◇法科大學

▲김명운46 ▲이현37
▲임종대39 ▲강도희88
▲강원규54 ▲강충식77
▲고건호82 ▲공영규64
▲구연모88 ▲권용석66
▲권춘현65 ▲김기형86

◇商科大學

▲김남주74 ▲김덕진77
▲김동재63 ▲김동찬81
▲김문수70 ▲김성대86
▲김수장66 ▲김종오78
▲김주옥57 ▲김진하62
▲김치동84 ▲김창섭73
▲김철자63 ▲김태현78
▲김흥영89 ▲김흥걸74
▲남기춘63 ▲박경식54
▲박광우61 ▲박봉규74
▲박승규58 ▲박종문83
▲박준형89 ▲박형일80
▲배기열86 ▲배진한83
▲백상현77 ▲서덕모77
▲성지용86 ▲신석호61
▲신용진87 ▲신현무62
▲신현일81 ▲안병익89
▲안창환88 ▲윤수길61
▲윤재식64 ▲이국환80
▲이규용78 ▲이대영56
▲이석용60 ▲이수길66
▲이수영78 ▲이원재85
▲이인화58 ▲이재방82
▲임경윤81 ▲장희석81
▲진광67 ▲정병권83
▲정지대63 ▲조영래58
▲조중환69 ▲최성주88
▲최성창79 ▲최영식76
▲최영진84 ▲최정덕65
▲최종원76 ▲하민호84
▲허부열85 ▲홍순범52
▲황성규85 ▲황정수89

◇獸醫科大學

▲강승원63 ▲김찬55
▲김건호74 ▲김만영54
▲김승중73 ▲김종상62
▲나길현65 ▲박내정67
▲박인선81 ▲변광복69
▲윤재득66 ▲이병천58
▲이상직55 ▲이우재62
▲장광호85 ▲정특66
▲조수식56 ▲한홍율63

◇藥學大學

▲오순근52 ▲이갑희57
▲이병엽81 ▲이숙연69
▲이영균76 ▲이현태60
▲장수자59 ▲정철영72
▲정희경88 ▲한현주81
▲정대규43 ▲김송덕59
▲김용대58 ▲김재백56
▲김정자62 ▲김창순89
▲김태근75 ▲박정희55
▲박창규56 ▲송진홍66

◇音樂大學

▲김중곤58 ▲설용해71
▲김홍기57 ▲김흥기65
▲노명완73 ▲류은선90
▲문계동57 ▲박관영57
▲박명희74 ▲박재근65
▲박재희57 ▲박제동75
▲박준희50 ▲박홍균77
▲배동선76 ▲배한제56

◇醫科大學

▲백강현65 ▲백경태75
▲백현기51 ▲소현영74
▲송길우84 ▲송재희80
▲신용철71 ▲왕문용70
▲왕세균72 ▲유영진57
▲윤영수59 ▲이건세69
▲이기원87 ▲이법직65
▲이보라73 ▲이상교65
▲이선원59 ▲이성규62
▲이수익65 ▲이양자63
▲이영일56 ▲이희환61
▲전신재65 ▲조병두65
▲조재승56 ▲조희정88
▲장호70 ▲차상렬67
▲차영남55 ▲차재병63
▲최규남69 ▲하갑수60
▲한기상68 ▲한연준60
▲한인섭60 ▲허운규47

◇商科大學

▲이강호36 ▲강영남45
▲박정호44 ▲조석조47
▲고명환56 ▲권동일61
▲김동원73 ▲김종현67
▲김창남62 ▲김채수61
▲박영기73 ▲박종기56
▲박종모56 ▲박충식66
▲박태준72 ▲변영일65
▲서윤석57 ▲신동은65
▲양봉희74 ▲오세권65
▲원정연67 ▲위계신58
▲유봉단57 ▲유희택57
▲윤영출86 ▲이웅근55
▲이재규70 ▲이재원59
▲이종석59 ▲이중수49
▲임종두68 ▲장건수73
▲정갑수71 ▲정기영71
▲정두채53 ▲최순원50

◇獸醫科大學

▲김기철83 ▲김남호80
▲김동수83 ▲김웅희79
▲김재원57 ▲김종민74
▲박문수78 ▲박미정79
▲박수성53 ▲박양희76
▲박우택62 ▲박지홍75
▲서광륜46 ▲서대식85
▲서정범54 ▲손봉기73
▲안형재84 ▲오향순82
▲윤보현79 ▲윤혜숙59
▲이광우76 ▲이동규83
▲이재룡56 ▲이종일64
▲이중화61 ▲이현동83
▲임재준56 ▲장순명68
▲진동수50 ▲전재명76
▲정용환82 ▲정운재81
▲조광수53 ▲주경란75
▲최송78 ▲최원주80
▲최하진51 ▲최학룡59
▲하은주84 ▲한달선64
▲홍성환62 ▲홍성훈67

◇齒科大學

▲이용팔42 ▲배택48
▲곽유신86 ▲김교식78
▲김상철79 ▲김선영83
▲김성우75 ▲김영렬83
▲김영수83 ▲김우종71
▲김웅걸71 ▲김재덕74
▲김진수61 ▲김학선86
▲박두환57 ▲박홍규77
▲손범식83 ▲양동규57
▲여운택84 ▲유정숙88
▲윤명국65 ▲윤영준66
▲이기우57 ▲이병운57
▲이상용88 ▲이유동69
▲이장호81 ▲이정운73
▲이화용59 ▲임승찬75
▲정봉준56 ▲정중화78
▲진우정78 ▲최규원83
▲하해근89

◇大學院

▲박남건86 ▲박훈61
▲안호순48 ▲윤승준85
▲이재철78 ▲조남국81
▲주홍재63 ▲지충수77
▲채의업62 ▲채재우73
▲하세가와86

◇經營大學院

▲김병철93 ▲김용범71
▲박금석71 ▲홍창표67

◇教育大學院

▲신극범68

◇保健大學院

▲권혁한77 ▲박원길67
▲오세중77

◇司法大學院

▲진병준74

◇行政大學院

▲박길홍66 ▲박정훈61
▲임세환71 ▲최봉기77
▲최순식75

◇環境大學院

▲고성하77 ▲김재우78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



崔泰奎 (59년 商大卒)
K.B.C.I. 사장



李鍾奎 (60년 文理大卒)
쌍용정공사장



李丙基 (62년 法大卒)
남해화학사장



李弘中 (71년 工大卒)
화성산업사장

동창회 재정확충을 위해 본회가 94년 9월부터 실시해온 「총동창회 국민신용카드」사업이 동문 여러분의 참여로 최근 개인 1만4백여매, 법인 2백13매 발급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면을 통해 카드 발급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발급기간: 96년 11월 1일 ~ 30일

법 인

◇대구투자금융 元虎出
(56년 商大卒)= 10좌
◇진성산업(주) 尹友錫
(67년 工大卒)= 3좌

개 인

◇人文大學

▲윤철호85 ▲전덕재85

◇社會科學大學

▲권태한80 ▲성재덕89
▲노흥기89 ▲신윤호88

◇自然科學大學

▲박경범82 ▲장근일89
▲장영록86

◇家政大學

▲정현수75

◇經營大學

▲이성은89

◇工科大學

◇商科大學

▲구창용64 ▲김일한85
▲김일환86 ▲김형도63
▲신승근64 ▲이규정70
▲노기홍76 ▲윤영훈85
▲이진식82 ▲이창식72
▲이희원87 ▲장성양88
▲황자룡77 ▲최대현66
▲홍주한86

◇農科大學

▲권명주89 ▲박종국63
▲박종만78 ▲이길수76
▲이봉대80 ▲한창수64
▲홍의표65

◇文理科大學

▲김송현64 ▲김양명68
▲김정희56 ▲전도율59
▲최시중63

◇法科大學

▲문복주72 ▲임경윤71
▲정갑주77

◇師範大學

▲백월용63 ▲박정모78
▲장기욱61 ▲장완배66

◇商科大學

▲이대세74 ▲정기준64

◇獸醫科大學

▲박인선81 ▲이병천87
▲이영득67 ▲조영웅67

◇藥學大學

▲정구경59

◇音樂大學

▲신대철73

◇醫科大學

▲장광89 ▲추연명79

◇齒科大學

▲김찬숙60 ▲조현제83
▲한남수67

◇大學院

▲백철78 ▲윤승준85

◇保健大學院

▲이용욱66